

마이너리티문학 속의 마이너리티이미지*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을 중심으로-

소명선**

smskk0604@cheju.ac.kr

< 要 旨 >

本稿は在日済州人文学と沖縄文学を中心にマイノリティー文学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ー・イメージ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マイノリティー文学として在日済州人文学と沖縄文学に焦点を当てるのは日本の帝国主義歴史の側面、済州島と沖縄の地政学的特性、そして日本文学のなかでこれら文学が示す位置など類似点が認められるからである。在日済州人文学と沖縄文学の中で生産・消費されているマイノリティー・イメージを分析しマイノリティーのアイデンティティ発見の過程で、それからマイノリティー社会が抱えている懸案に対してこれら文学はいかなる役割をしてきており、今後マイノリティー文学に要求される文学のありかた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を考えてみる。在日済州人文学と沖縄文学は強制された支配者の言語を使わざるを得ず、中央文壇の美的基準と正統性からも自由であり得ない二重の抑圧下に置かれている。存在それ自体が政治的であるマイノリティーが彼らの文学のなかで産出するマイノリティー・イメージは、マイノリティー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獲得する過程で生まれたマイノリティーの自画像であり、マジョリティー社会に対する政治的メッセージである。そのなかには植民地主義/帝国主義の断絶性と連続性が見られる。文学のポストコロニアル化のためにはステレオタイプ化して流通するマイノリティー・イメージを解体し、解体したイメージを媒介に様々な形でマイノリティー化した者の歴史を再確認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주제어 : 마이너리티문학, 재일제주인, 오키나와, 포스트콜로니얼문학
Minority literature, Jeju people in Japan, Okinawa, Postcolonial literature

1. 들어가며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마이너리티 개념은 민족, 종족, 종교, 언어의 4가지 측면에서 다수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여겨지는 소수파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본사회 속의 대표적 마이너리티로는 아이누인, 오키나와인, 재일외국인(재일한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결과(岩間暁子·ユヒヨチヨシ 2007:51)를 보면, 일본인의 마이너리티 개념에 대한 인식에는 타국가와 비교해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일본사회에서 유통되는 마이너리티 개념은 ‘약자’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서 ‘확산’되어 있고,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로서의 인식은 약하다는 사실이다. 이 ‘약자’ 속에는 문화적·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받는 집단 등의 다양한 소수집단이 포함되어 있어,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은 아이누인, 오키나와인, 재일외국인과 같은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 외에도 장애인, 피차별부락인, 독특한 사고와 행동방식의 소유자, 여성, 매춘부, 동성애자, 아동,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정신병자,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32-A00172)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홈레스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마이너리티 개념에 있어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로서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사회에서 실제 마이너리티로 분류되는 재일제주인과 오키나와인의 경우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본 논문은 마이너리티문학 속에 나타난 마이너리티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다. 마이너리티문학인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문학 속에서 마이너리티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마이너리티문학으로서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적 측면, 제주도과 오키나와가 가지는 지정학적 특성, 그리고 일본문학 속에서 이들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 등에서 유사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1978:27)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너리티문학은 마이너리티언어에 의한 문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머조리티 언어권 안에서 마이너리티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창조된 문학이다. 일본의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재일제주인과 오키나와인은 지배자의 언어인 일본어를 강제당했다. 재일제주인 중 한국어로 창작이 가능한 작가는 극소수의 1세대뿐으로 생활언어이자 문학언어는 일본어인 것이 현실이다. 창작활동을 통해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는 마이너리티작가들의 노력은 재일제주인문학의 경우 식민지종주국에서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민족적 정서와 이미지가 묻어나오는 ‘이카이노어(イカイノ語 혹은 클레올어)’를 산출하기도 했고, 오키나와문학의 경우 표준어(일본어)와 오키나와방언을 합성한 ‘우치나-야마토구치(ウチナ-ヤマトグチ)’를 통해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해 왔다. 억압받는 마이너리티의 문학행위는 머조리티에 대해 탈국가적이고 탈정치적이며 탈역사적인 형태로 문학적 영역을 획득하려는, 문학의 장에 있어서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마이너리티가 그들의 마이너리티성을 주장하는 것은 머조리티에 대해 대항적인 내셔널리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이너리티문학 속에 형상화된 마이너리티이미지는 마이너리티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면서 머조리티사회에 대한 이의제기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마이너리티의 문학적 투쟁은 지배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중앙문단의 심급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중적’ 압제 하에 놓여있다. 본고에서는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 속에서 생산·소비되어지고 있는 마이너리티 이미지의 유형을 분석하고, 마이너리티의 자기정체성 발견과정에 있어 그리고 마이너리티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이들 문학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금후 요구되는 문학적 존재방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

먼저 일본의 마이너리티문학으로서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 특히 재일제주인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재일제주인문학은 제주도를 연고지로 하는 작가의 문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범주에서는 재일문학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문학과 비교대상을 재일제주인문학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밝힌 것 외에 재일한인 작가 중 제주도를 연고지로 하는 작가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3명의 재일작가—1971년도 하반기(66회) 이회성의 「다듬이질하는 여자(砧をうつ女)」, 1989년 상반기(100회) 이양지의 「유희(由熙)」, 1999년 하반기(122회) 현월의 「그늘 집(蔭の棲みか)」—중 이양지와 현월이 재일제주인인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듯, 활동 중인 재일작가 중 제주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¹⁾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와 오키나와가 가지는 역사적·문화적 측면과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이 마이너리티 인식에 작용하여 이들 문학의 마이너리티 표상에 있어 공통된 혹은 상이한 구조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이다.

현재 일본에서 지역명을 단 문학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유통되는 것은 오키나와문학이 유일하다.²⁾ 그러나 재일문학은 물론 재일제주인문학은 오키나와문학과 같이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문학의 장을 갖지 못한다. 식민지종주국인 일본, 남북으로 분단된 조

-
- 1) 제주도를 연고지로 하는 재일문인들에 대해서는 좋고 「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일본근현대문학 속의 ‘제주도’」(『동북아 문화연구』17집 2008.12)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소설 장르에 한해서 또한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작가만 살펴보아도 김석범(金石範), 김태생(金泰生), 원수일(元秀一), 양석일(梁石日), 김길호(金吉浩), 김종명(金重明), 현월(玄月), 이양지(李良枝), 김창생(金蒼生), 종추월(宗秋月), 김마스미(金真須美),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등이 있고, 평론가 오선화(吳善花), 문예비평가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 등도 재일제주인이다.
 - 2) 오키나와문학은 일본의 근대문학에 비해 20년 정도 뒤늦은 출발을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오카모토 케토쿠(岡本恵徳)는 일본에 비해 근대화 자체가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점, 언어문제, 그리고 근대화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모순들, 즉 “사회제도적인 차이와 경제적 빈곤이 초래하는 문제, 풍속습관의 차이가 ‘차별문제’를 유발”하여 문학상에도 반영이 된 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沖繩文學選—日本文学のエッジからの問い』 勉誠出版、2003.05 pp.5~7) 오키나와전쟁과 패전으로 이어진 미국에 의한 점령정치가 27년간 계속되었고, 미소냉전체제로 인해 오키나와에 대한 점령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1956년 점령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류큐대학의 문학동인지 「琉大文学」이 발간금지처분을 받은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문학에 있어도 강한 규제를 가해 왔다. 1960년대말 일본으로의 복귀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1966년7월 오키나와타임스가 간행한 「新沖繩文学」은 1993년 95호로 중단하기까지 오키나와의 문학, 사상, 문화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창간호에 실린 「오키나와는 문학불모지인가(沖繩は文学不毛の地か)」라는 좌담회에서는 ‘문학불모지’라는 레텔을 부정하고 언어문제와 오키나와문학이 그려야 할 문학적 테마, 그리고 문학의 보편적 진리 추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1975년 28호부터 「琉大文学」을 통해 활동했던 아라카와 아키라(新川明)가 편집장을 맡으면서 신오키나와문학상을 설정하면서 많은 신인작가들을 배출했고 이후 전후 오키나와의 창작과 비평활동은 「琉大文学」과 「琉大文学」이 주축이 되어 활발히 전개되었다. 「琉大文学」4호에 게재된 오시로 다츠히로(大城立裕)의 「각테일파티(カクテル・パーティ)」가 1967년 제57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어 1971년도 제66회에는 히가시 미네오(東峯夫)가 「오키나와의 소년(オキナワの少年)」(『文学界』1971.12)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다. 이로 인해 1968년 간행된 『新潮日本文学小辞典』에는 야마노구치 바쿠(山之口篁)에 관한 기술이 있을 정도였으나 1988년 증보판이 나오면서 ‘오키나와문학’과 ‘아이누문학’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어서 1995년도에는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栄喜)의 「돼지의 보은(豚の報い)」(『文学界』1995.11), 1997년도에는 메도루마 슌(目取真俊)의 「물방울(水滴)」(『文学界』1997.4)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사키야마 다키(崎山多美)와 고하마 기요시(小浜清志)의 작품이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 그리고 제주도마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역문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없다. 만일 오키나와문학을 지역문학으로 간주하는 경우 지역적 거점이 없는 재일제주인 문학은 비교의 대상으로 부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논자는 오키나와문학을 오키나와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라는 동일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현재 지도상의 지명은 사라졌지만, 이카이노(猪飼野)는 오사카시(大阪市) 동부의 이쿠노구(生野区)와 히가시나리구(東成区)에 있는 재일한인이 밀집해 있는 지구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재일제주인의 오사카로의 도일 경로와 정착에 대한 연구 결과³⁾가 밝혀주듯 제주인은 대부분 이카이노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했다. 그 결과 재일제주인 작가들의 문학적 원풍경에는 늘 이카이노가 스케치되어 있다. 따라서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공간은 아니지만, 재일제주인에게 있어 이카이노는 문학적 공간, 즉 재일제주인의 문학적 토포스(topos)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재일제주인과 오키나와인은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고유의 언어사용을 금지당한 역사적 체험을 갖고 있다. 1879년에 단행된 ‘오키나와처분’은 오키나와의 식민지 편입을 의미하며 이후 오키나와는 정치체제, 언어, 문화 모든 면에서 일본으로의 동화(同化)를 강요당했다. 특히 언어레벨에서는 오키나와방언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본어(표준어)를 강요했는데, 이것은 1910년 조선을 병합한 후 조선에서 실시한 언어정책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과 오키나와인이 일본문단에서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문학언어로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복수의 언어의 장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표준어인 일본어로 쓸 것인가, 오키나와방언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재일제주인이 종주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쓸 것인가, 조선어(한국어)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와 흡사하다. 이처럼 표현행위를 하고자 할 때 특히 소설을 쓰고자 할 때 단일언어가 유통되는 지배적 머조리티와는 달리 마이너리티는 언어문제로 인한 벽에 먼저 부딪치게 된다.

식민지지배자의 언어의 폭력성은 현재에도 일본사회의 차별구조를 드러내는 잔재로 남아있다.⁴⁾ 그러나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한인과 오키나와인은 지배자의 언어지만 일본어로서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마이너리티 고유의 영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문단의 미적 기준과 정통성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마이너리티 문학이 중앙의 심급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일본문단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쿠타가와상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지배자의 문학적 심급에 부합되는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중앙심급의 권위를 대항하는 선정자의 정치적 성향과 개별적인 기호에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1971년도 하반기 제66회 아쿠타가와상을 히가

3) 예를 들어 金贊丁『異邦人は君が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新書, 1985.8), 杉原達『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1998.9) 등.

4) 고유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지배자의 언어는 그 자체가 폭력적이고, 지배자의 언어에는 이미 피지배자에 대한 모멸과 멸시의 관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은 스테레오타입화되어 현재에도 유통되고 있다.

시 미네오(東峯夫)와 이회성이 공동수상한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재일작가와 오키나와작가 중 문학적 달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마이너리티문학 중 수상작을 선정하는 ‘최고의 권위자’의 문학적 기호에 부합되는(혹은 부합되지 않는) 작품이었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보면 아쿠타가와상 선고위원 중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1997:431)는 제117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메도루마 슌(目取真俊)의 『물방울(水滴)』(『文学界』1997.4)에 대해 “오키나와의 지방으로서의 개성을 입증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오키나와전쟁의 의미를 지방색을 표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제국의 도발전쟁을 은폐하기 위한 태도이며, 오키나와인에게 있어서의 오키나와전쟁의 의미를 무시한 태도이다. 제122회 수상작인 현월의 『그들의 집』(『文学界』1999.2)에 대해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님은 알 수 있지만 작자가 독자에게 호소하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풍속소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선포했다.(石原 2000:363) 이시하라는 문학상 선정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재일한인과 오키나와인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마이너리티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이너리티문학은 중앙문단의 심급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동시에 마이너리티문학으로서의 자율과 문학의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김석범(2001:143)은 재일문학이 일본문학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재일문학은 일본의 문학계에서 ‘시민권’과 “문학 자체로서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식민지성이라는 부정의 각인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문학의 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일문학이 일본문학에 있어 새로운 일본어를 창조해 내고 “신선한 혈액이라도 주입하는 담당자”(金石範 2001:158)라는, 즉 일본어와 일본문학의 발전에 재일문학이 기여한다는 사고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오키나와문학에도 나타나고 있다. 신조 이쿠오(新城郁夫 2007:98)는 근·현대오키나와에 있어 일본어로 글을 쓴다는 행위는 “국민국가 생성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대단히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가졌으며, 오키나와의 작가는 일본어라는 표현영역 속에서 소설을 쓰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정치성에 대해 자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시로 다츠히로(大城立裕)가 『오키나와에서 일본어 소설을 쓰는 것(沖繩で日本語の小説を書くこと)』이란 에세이에서 오키나와방언이 일본어의 표현영역을 넓히고 표준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 속에서 신조는 오시로의 반전된 승인 욕구를 발견하고 있다. 오시로의 발언은 오키나와어의 역할이 “일본어라는 중심을 보완하는 주변문화로서만 승인되고 허가되어 온 공허한 기호”(新城 2007:100)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본어라는 기준틀에서 오키나와방언은 어떤 주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전도된 승인욕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재일작가와 오키나와작가에게 있어 ‘왜 일본어로 쓰는가’하는 문제는 외부로부터 혹은 작가의 자성적인 의식에 의해 반복되어온 질문이다. 그러나 김석범(1999:234)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작가의 경우 한국어란 표현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질문으로 생활언어로서의 일본어밖에 구사할 수 없는 작가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모순된 질문이다. 따라서 마이너리티문학은 ‘왜 일본어로 쓰는가’가 아니라 ‘왜 쓰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주제의 문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 누구를 향해 쓸 것인가 하는 대상의 문제, 그리고 누가 써야 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3. 제일제주인문학 속의 마이너리티

3.1 근대사의 희생자

김석범은 「까마귀의 죽음(鴉の死)」(『文芸首都』1957.12)에서 시작하여 20년에 걸쳐 완성시킨 대작 『화산도(火山島)』(全7卷. 文芸春秋, 1983.6~1997.9)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4·3사건을 문학적 테마로 해 온 대표적 작가이다.⁵⁾ 2005년에 발간된 『김석범작품집 I(金石範作品集 I)』(平凡社, 2005.9)의 권말 부록에는 「1949년경의 일지에서—‘죽음의 산’의 일지에서(1949年頃の日誌より—「死の山」の一節より)」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1951년 「조선평론(朝鮮評論)」창간호에 박통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이 소설은, 4·3사건을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진 「까마귀의 죽음」보다 6년이나 앞서 발표된 것으로, 특히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설로서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4·3사건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생명이 총탄과 고문으로 사라져가는 시기, 까마귀의 불길한 울음소리, 경찰서 앞 광장에서 처참하게 살해되는 두 모녀와 같은 내용은 「까마귀의 죽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살고 있는 화자 ‘나’가 외국의 군함과 국기가 휘날리는 부산을 경유해서 제주도에 입도하여 4·3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다는 설정에서 이후의 작품과는 차이를 보인다.

4·3사건을 테마로 한 김석범의 작품들은 역사와 민중, 역사로부터의 구속과 해방, 기억과 망각, 전승 등이 다채로운 인물구성과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 속의 마이너리티는 일관되게 근대사의 희생자로서 표상되고 있다. 특히 식민지 지배하에 일본인과 권력구조에 편승하려는 친일세력들에 의해 이중으로 고통받는 최하층의 민중들의 모습을 박서방, 종기할아범, 만덕, 용백과 같은 인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제주도의 4·3사건이라는 테마는 당시 일본문단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한인 양대 조직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과 “편협한 제주도 작가”(金石範·玄基榮 2001:239)라는 냉

5) 소설의 현재적 시점과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4·3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이 외에도 「看守朴書房」(『文芸首都』1957.8), 「觀德亭」(『文化評論』1962.5), 「万徳幽靈奇譚」(『人間として』1970.12), 「夜」(『文学界』1971.11), 「1945年夏」(筑摩書房, 1974.4), 「乳房のない女」(『文学的立場』1981.5), 「幽冥の肖像」(『文芸』1982.1), 「金縛りの歲月」(『すばる』1983.7), 「夢、草深し」(『群像』1991.4), 「炸裂する闇」(『すばる』1993.9), 「地の影」(集英社, 1996.6), 「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講談社, 2000.2), 「満月」(『群像』2001.4), 「地底の太陽」(集英社, 2006.11) 등이 있다.

소 속에서도 김석범은 일생의 숙업과도 같이 4·3사건을 써 왔다. 그의 소설은 일본 독자에게 한반도의 식민지 역사와 해방 후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소냉전체제 속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다.

5살에 모친과 생이별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김태생의 작품세계는 김석범과는 대조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야시 고지(林浩治 1991:121)는 그 차이를 ‘사회소설의 언어’와 ‘사소설의 언어’로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식민지 상황, 해방, 조국분단, 4·3사건과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 『후예(末裔)』(『鷄林』1958.11)와 『둥지 떠나기(巢立ち)』(『文芸展望』1977.4)는 소년의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 이후 자신이 체험하는 역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죽음, 가족의 해체와 겹쳐 인식되어지고 있다.

김태생의 『한 여자의 생애(ある女の生涯)』(『季刊三千里』1975.秋)와 『붉은 꽃(紅い花)』(『すばる』1983.11)은 식민지 지배와 제2차세계대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서 불우한 삶을 산 여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한 여자의 생애』는 김추월이라는 여성의 짧은 생애를 통해 일제치하의 제주도의 현실과, 궁핍한 생활고 끝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제주도민의 이주사의 한 단면을 그리고 있다.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 간 어머니, 한라산 기슭에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으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지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빼앗겨 버린 아버지, 김추월 자신도 결혼 후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어 식민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공업도시로 흡수하는 종주국 일본으로 향한다. 김추월은 방직공장을 전전하지만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급료도 받지 못한 채 결국 남편이 있는 오사카에 정착하게 된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는 남편을 대신해 화장터에서 일하는 김추월은 출산한 자식들을 모두 잃고, 자신도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죽고 만다.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과 소설의 내용면에서 양석일의 『천둥소리(雷鳴)』(徳間書店、1995.10)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유교적인 인습과 질곡을 살아가는 몰락한 양반 출신의 이춘옥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도일을 결심하는 과정을 통해 일제와 식민지정책에 동조하는 이들에 의해 민중의 경제적 기반인 토지가 수탈되는 과정과 제주도민의 이산의 배경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에는 일본제국의 식민지, 해방, 조국분단, 한국전쟁이라는 근대사의 희생자로서의 재일제주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서전 『수라를 살다(修羅を生きる)』(講談社、1995.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양석일의 소설은 인쇄사업에 실패하고 센다이(仙台)로 옮겨가지만 새로운 사업도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무일푼으로 동경에 돌아와 10년 동안 택시드라이버 생활을 한 경험이 소설 속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의 한 작품인 『족보의 끝(族譜の果て)』(立風書房、1989.1)에는 “아직도 조선, 대만, 만주를 일본국의 것이라 믿고 있는 인간”, “일본인의 우수함과 순혈주의를 서슴지 않고 과시하는 인간”(270)⁶⁾으로 고토란 자가 등장한다. 고토인의 회사에 전무로 영입되었으나 일찍이 식민지였던 열등민족이 자기 위에 군림하고 있

6) 梁石日 『族譜の果て』(幻冬舎文庫、1999.12) p.270 이후 소설 작품으로부터의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하기로 하였다.

다는 사실과 고태인의 좌익적인 발언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회사를 방관하고 사원들을 부추겨 회사를 그만두게 한 인물이다. 그런데 고토에게는 일본군으로서 중국전쟁에서 수많은 중국인을 학살하고 부녀자를 범한 과거가 있다. 뿐만 아니라 패전하자 살아남기 위해 조선인위안부를 방패막으로 이용하고 버린 인물이다. 만주로 끌려와 2년간 일본군의 성노예생활을 한 김영춘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었기에, 일본에 데려가주겠다는 고토의 말에 희망을 건다. 무사히 만주를 탈출하여 부산항에 도착하지만 일본으로 갈 운임비 마련을 위해 매춘을 해야 했고, 결국 고토는 그런 그녀를 부산에 저버리고 혼자 일본으로 귀환한 것이다. 이 소설에는 고토란 인물을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침략전쟁과 식민지 역사를 은폐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조선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일본인상과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조선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미가요마루를 타고 식민지종주국의 땅 이카이노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재일제주인 여성들의 삶을 그린 원수일의 『이카이노이야기—제주에서 온 여자들(猪飼野物語—濟州からきた女たち)』(草風館、1987.7), 「발병(発病)」(『民涛』1989.2), 「병풍(屏風)」(『社会文学』2007.6)과 같은 작품들에도 근대사의 희생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시대에 일본군에 징병당해 사망한 가족, 한국전쟁, 남북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이카이노사회의 이데올로기 대립 양상, 한국의 정권 변동과 그 여파로 조국 방문의 꿈이 좌절되는 모습들이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듯한 소박한 여성들의 삶의 애환 속에 묻어나오고 있다.

3.2 다층적인 차별구조 속의 피차별자

피차별자로서의 마이너리티 이미지는 재일문학의 가장 일반적인 테마로 재일제주인문학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⁷⁾ 『몽마의 저편으로(夢魔の彼方へ)』(梨花書房、1980.8)라는 시로 문학활동을 시작한 양석일이 일본문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광조곡(狂躁曲)』(筑摩書房、1981.11)에 의해서다. 특히 택시드라이버 시리즈에서 양석일은 택시드라이버의 눈으로 식민지 약탈로 부강한 자본주의국가 일본의 표면적 평화의 이면에 자리한 ‘어둠’의 세계, 매춘과 폭력, 도박이 난무하는 견재하지 못한 일본사회의 일면을 냉철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때 택시드라이버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일본인들에 대한 관찰자이자 비판자이다. 강도 높은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속에 영업수익에 대한 압박감, 수면부족과 누적된 피로, 혹독한 노동을 견뎌내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택시드라이버의 생태는 ‘조선인’이라는 마이너리티의 시선으로 바라본 머조리티사회의

7) 이와 관련해서는 「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일본근현대문학 속의 ‘제주도’」(『동북아문화연구』17집 2008.12)의 제3장 「재일제주인이 본 ‘제주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제주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으로 반복되는 피차별자로서의 재일제주인상이 재일제주인문학 속의 마이너리티 이미지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또한 재일제주인문학 속의 마이너리티 양상에서는 가급적 「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에서 언급하지 않은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모순된 양상이며, 마이너리티가 바라본 마이너리티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마이너리티로 형상화되는 대상은 등장인물의 인간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조선인’자신, 일본인 택시드라이버, 풍속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여기에는 재일한인여성뿐 아니라 일본인 여성, 그리고 필리핀여성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양석일 소설에서는 ‘조선인’의 시각이 절대시되는 것이 아니라, 백미러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의 모습이 ‘또 한사람의 나’로 비치는 것처럼 자신마저도 타자화하고 있다.

『공동생활(共同生活)』(『文芸展望』1978.7)은 택시드라이버인 호소카와를 비롯한 3명의 일본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야나가와의 시선으로 “생활도 습관도 언어도 다른 미개 인종”, “상상 속에서 날조된 이형(異形)의 용모를 가진 조선인”상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인들과의 괴리를 그리고 있다. 게으르고 소심하며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호소카와지만 누구보다 의리와 인정이 넘치는 자로 기꺼이 야나가와의 보증인이 되어준다. 그러나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처음으로 야나가와가 ‘조선인’임을 알고 야나가와는 좋아하지만 역시 조선인은 싫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조선인은 교활하고 불결하고 교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략)나를 만나기까지 호소는 조선인을 한사람도 몰랐는데 어떻게 조선인이 교활하고 불결하고 교양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야 옛날부터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고향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척이 모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어”(48)

야나가와와 호소카와의 대화는 식민지시대의 조선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일본인의 “피부감각 그 자체, 육체의 일부 그 자체”(50)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 야나가와가 ‘조선인’이고 ‘김일성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생이 우익 간부임을 자랑하고, 술이 취하면 철투구, 군가, 히노마루 부채 등으로 노골적으로 도전해 오는 단골 요리집 주인, 표면적인 우호와는 달리 조선인을 기피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통해 차별과 멸시를 받는 재일한인의 현실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지하고 소심하며, 술과 도박으로 최하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인 택시드라이버의 생태 관찰을 통해 일본 사회의 약자인 호소카와를 조선인 야나가와의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일본사회에서 법적 권익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일한인에게 있어 외국인등록증은 가시적인 차별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양석일의 『신쥬쿠에서(新宿にて)』(『文芸展望』1978.7)는 외국인등록증을 둘러싼 재일한인의 비애를 트릭스타와도 같은 인물 조형을 통해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소설은 택시드라이버인 ‘나’가 한때 조국통일을 위한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 한성형과 신쥬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나’는 사회주의 사상의 소유자였던 한성형이 현재는 금융업을 하며 순수했던 시절에 비해 다소 변질된 듯한 모습을 발견하지만, 한성형은 술이 취하자 재일사회와 한국사회 비판에 열변을 토한다. 그러다 초로의 일본인 남자가 일본병으로 조선에 주둔했을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조선인 남성에게 수간(獸姦)을 시켰다는 옆 테이블의 대화에 한성형은 격분한

다. 초로의 일본인을 두둔하는 대학생 일행이 남의 나라에 있지 말고 돌아가라는 차별적인 말을 던져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된다. 계장이란 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빌미로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귀국조치시키겠다는 등의 '대연설' 도중 한성형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된다. 한성형은 변을 보고 그 변을 자신의 몸과 얼굴에 바르고 이어서 책상, 의자, 서류책장 등에 바르는 행위로 그들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다. 김석범도 「등록 도둑(ト一ク泥棒)」(『文学界』1972.5)에서 분단된 민족의 일원으로서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재일한인의 고통을 외국인등록증이란 소재를 통해 그리고 있지만, 한성형이라는 인물을 통한 양석일의 차별에 대한 저항은 압도적이다.

한편, 이양지의 경우 재일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사회와 재일한인사회의 차별/피차별구도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또 다른 억압기제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중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각(刻)」(『群像』1984.8), 「유희(由熙)」(『群像』1988.11), 유작인 「돌의 목소리(石の声)」(『群像』1992.8) 등 한국유학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는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일본사회에서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작용하고 있어 그 어느 쪽에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없는 주인공의 고뇌가 그려져 있다. 데뷔작인 「나비타령(ナビ・タリヨウ)」(『群像』1982.11)과 「해녀(かづきめ)」(『群像』1983.4)에서 보이는 주인공 여성의 불행과 두려움은 모두 '조선인'이라는 사실에서 기인된 것이다. 조선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어머니가 재혼한 일본인 가족의 멸시와 성적인 학대, 학교에서의 차별은 그녀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거부반응과 극심한 피해망상으로 나타난다. 사회 교과서에 '조선'이라는 문자만 봐도 두렵고 적혀진 내용 이전에 '조선'이라는 울림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할 거라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나비타령」의 애자는 불결하고 혐오감을 자아내는 행동으로 인해 '조선인'이 아니냐고 멸시당하는 지적장애자 오치카(お千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고, '조선인'임을 숨기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여관 주인이 처음부터 조선인임을 알고 고용했다는 사실과 "조선은 원래 은혜를 모르고 부끄럼도 모르고, 정말 말도 안 나오네." (21)라는 말에 절망한다. 아무리 숨기고 부정해도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길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정치와는 무관한 한국의 전통예술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한국 유학도 모국어를 모르는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일본'냄새를 물씬 풍기는 맨몸의 기묘한 이방인" (47)으로서의 자기발견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3.3 재일제주인여성

재일한인문학에서 여성작가가 일본문단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이양지에 의해서이지만, 그 외에도 1980년대에는 종추월, 김창생과 같은 여성작가의 활동이 두각을 보이게 된다. 정영혜(鄭暎惠 2003:13)는 재일여성과 그 2세들에게 있어 진정한 해방이란 일본사회

의 민족차별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폭군<아버지>에 의해 지배되어 온 <집>과 <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태생과 원수일 등의 남성작가에 의해 그려진 재일1세대 여성의 삶의 행태와는 달리, 여성작가의 작품은 젠더적 시각에 의해 여성이기 때문에 깊어지고 가야 할 이중삼중의 고통을 여성 자신의 목소리로 그리고 있다.

중추월의 『이카이노 대평 안경(猪飼野のんき眼鏡)』(『民涛』1987.11)의 화자는 남편을 대신해 이마자토(今里)에서 선술집을 하며 4남매를 키우며 살아가는 준코라는 여성이다. “세끼 밥 먹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습관”이며, 그 “당연한 습관을 유지할 수 없는 주부는 실격자라는 상식이 정착”(13)해 있는 이카이노사회는 봉건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유교적 인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양복 프레스공이었으나 결혼 후 인간관계 등의 트러블로 직장을 전전하는 남편을 대신해 선술집을 시작했으나 자존심과 질투로 남편의 광란은 그칠 줄을 모른다.

큰 몸집의 남자의 광기는 가령 준코가 집밖으로 도망쳐도 맨발로 쫓아와서 아스팔트 위에 준코를 엮어누르는 것이다. (중략)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속에서 텅군 자신의 몸의 수치보다도 광란하는 남편이 애처로워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등 뒤에서 제압하고 그 등에서 울었던 슬픔이 준코를 웅크리게 하는 것이다. 오빠를 등 뒤에서 제압한 어머니처럼 준코도 또 남편의 등에 대고 우는 슬픔 속에 인과율과 같은 재일하는 여자의 업을 답습한 것이다.(15)

남자가 단지 남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 광기를 “‘집’이라는 안도 속에서밖에”(16) 분출할 수 없는 ‘재일’ 남자와 그 광기를 인내해야 하는 여자의 비애를 그리고 있다. 준코는 “남자. 남자. 남자. 남자가 단지 남자라는 사실만으로 여자와는 또 다른 <뛰어난 인간>이라는 윤리”(34), 가정주부,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유교적 인습과 가정 내의 폭력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일본에 가져온 신앙”(8)을 이어 귀신을 쫓는 주술의 의미로 성냥을 지니고 다니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준코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자 한다.

단골 찻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준코는 어느 날 찻집에서 아이들 가수들의 갑작스런 약혼 파기 뉴스를 화제로 약혼파기의 이유를 추측하는 여자 손님들의 대화를 듣게 된다. “저 여자 백정이었어, 그래서 고다와 헤어진 거야.” “난 여자가 조선인이라고 생각했어. 숨겼지만 들통난거야.”라는 식의 대화에서 준코는 ‘백정’ ‘조선인’에 대한 그녀들의 무의식적인 차별을 발견한다. 또한 준코는 피해와 가해, 차별과 피차별의 구도가 너무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지역 일대에 방화에 의한 화재가 계속되는 속에 준코는 드디어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범인이 시장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의 아들임을 알고 놀란다. 준코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를 저지시킨 적이 있었던 것이다. 방화범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세세하게 기재한 기사를 읽고 준코는 “네가 그래도 인간이야!!”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말을 떠올린다. 자신의 말이 남자의 광기를 고조시킨 것은 아닐까, “저 가해자인 남자

가 그 때 준코가 퍼부은 외침에 의한 피해자”(37)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몹서리친다. 이처럼 「이카이노 태평 안경」에는 마이너리티로서의 여성의 삶만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피차별집단의 최하위 구조를 이루는 여성자신이 차별을 반복하는, 피차별집단 내부의 중층적인 차별구조의 단면을 그려내고 있다.

『불꽃—히라노운하(華火—平野運河)』(『民濤』1990.3)에서는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을 꿈꾸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 결혼생활 17년 동안 경자에게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보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울며 매달리는 세 딸의 모습이였다. “조선여자의 업, 유교에 지배되는 여자의 업”(68)을 자신의 대에서 끊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집을 나온 경자의 내면세계가 그려져 있다.

김창생의 경우도 작품집 『붉은 열매(赤い実)』(行路社, 1995.6)에 수록된 단편들을 통해 재일여성의 자립을 그리고 있다. 『붉은 열매』에는 “한 집에 머리는 두 개 필요없어. 난 철학하는 여자는 필요없어”(352)라는 남편의 남성중심주의적 사고, 여자의 성을 자식을 출산하는 수단으로서밖에 여기지 않는 시어머니, 결혼생활이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옥녀가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서 딸 진아를 키우며 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피크닉(ピクニック)』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후 혼자가 된 어머니가 실의에서 벗어나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딸의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다. 광산김씨 공동묘지에 조모의 납골식과 별초를 겸해 친지들이 모이는 날, 화자인 아사미는 소풍가는 기분으로 이른 아침부터 음식준비로 부산한 어머니를 도와 삼각김밥을 만든다. 전차를 타고 묘지로 향하면서 손과 발이 유난히 작은 어머니가 삼각김밥을 큼직하게 만들지 못해서 생긴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는 아사미에게 혼자가 된 어머니의 삶을 응원하는 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차별주체인 일본사회와 피차별주체인 재일한인사회, 그리고 재일한인사회의 남성중심주의적 사고,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가장이라는 다중적인 억압구조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통해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이자 재일한인 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여성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일본인과의 혼혈아

재일사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귀화인구와 일본인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혼혈아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외견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인지 재일문학에 있어 혼혈아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김사랑의 『빛 속으로(光の中に)』(『首都文芸』1939.1)와 다치하라 마사아키(立原正秋)의 『츠루기가사키(劍ヶ崎)』(『新潮』1965.4)와 같은 작품이 혼혈아를 그리고 있지만, 일본인과 재일한인과의 혼혈문제가 비평의 초점이 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일제주인문학의 경우, 원수일의 『금목서(キンモクセイ)』(『濟州島』1989.4), 양석일의 『족보의 끝』, 현월의 『무대배우의 고독(舞台役者の孤独)』(『白鴉』1998.4), 『권속(眷族)』(『群像』2007.7)과 같은 작품에 혼혈아가 등장하고 있다. 원수일의 『금목서』는 이국땅에서 술한 역

경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재일제주인 1세 여성의 삶을 그린 『이카이노이야기』와 유사한 작품으로, 진한 향기를 풍기는 금목서가 있는 집에 사는 괴팍한 하루오할망의 이야기를 소년 김홍이의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 살인죄로 복역한 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아들 하루오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루오할망의 혈육에 대한 집착을, 야쿠자와 대치하는 장면, 치통을 견디지 못해 충치에 살충제를 분무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는 에피소드 등의 해학적인 요소와 함께 그리고 있다. 하루오할망은 하루오의 두 딸 화미와 미향과 생활하고 있다. 미향은 언니인 화미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자신이 미향이라고 불리는 것에 불만이다. 미향은 아버지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조선인 사이에 태어난 화미와는 달리 자신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미향에게 화미는 ‘미카(美香)’가 아니라 ‘미향’이며, ‘오바창(おばあちゃん)’이 아니라 ‘할머니’라고 다그치며 미향에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한다. 이 작품에서 원수일은 미향이 조선임을 부정해도 재일한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은 결국 일본인 사회가 아니라 재일한인 사회 속에서 재일한인과 동일한 불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양석일의 『족보의 끝』에는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토코라는 매춘부가 등장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매일같이 수표와 어음 돌려막기에 여념이 없는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던 고태인이 어느 밤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여성이다. 사토코를 일본인으로 생각한 고태인이 자신의 본명을 말하자 사토코는 자신이 조선인 혼혈아임을 밝히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어머니는 불쌍했어.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매일 밤 맞았어. 너 같은 일본 여자와 함께 된 것이 운이 다한 거라며. 어느 밤 술 취한 아버지가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지만 그토록 맞았는데 장례식 날 어머니가 울었던 게 이상했어. 나와 동생은 마을 아이들에게 “조선, 조선”이라며 자주 괴롭힘을 당했어. (중략) 내 몸 속에서 조선인의 피를 뽑아버리고 싶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로 집단 취직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지. 일을 전전하면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소년감별소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어. 그 사이 접객의 세계에 들어와……정해진 코스지”(208)

모든 일을 일본인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며 술과 폭행을 일삼아 온 조선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 사토코는 자신의 삶의 불행이 자신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조선인의 피 때문이라고 생각할 만큼 조선인을 혐오하고 있다. 재일한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떠나 출신을 숨기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재일한인 중에는 사토코와 같은 혼혈아도 혼재해 있다. 그러나 원수일과 양석일의 작품에서는 혼혈아를 일본사회의 새로운 타자로서 혹은 마이너리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일한인과 동일한 운명공동체로 보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월의 『무대배우의 고독』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노조무는 일본인 아버지와 제주도 출신의 어머니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다. 그러나 노조무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아버지 사망

후 제주도로 쫓겨 간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접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다. 숙부의 호적에 입적되었을 때는 뛰어난 적응력으로 숙부와 숙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며 어리광까지 부릴 수 있었고 동생이 생긴 사실도 기뻐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어머니=한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숙부=일본인 부부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에도 의문을 갖지 않았다. 노조무에게 있어 죽음은 단지 ‘불길’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에도 또 한 사람이 불길 속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동생의 죽음에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슬픔을 느꼈고, 동생이 형체도 없이 불길 속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어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 이처럼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에 대해 아무런 의문 없이 지내온 노조무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전기(轉機)가 찾아온다. 그것은 한국성당의 신부직을 맡기도 했으나 스스로 성직을 포기한 캐나다인 카라반과의 대화에 의해서이다.

“이 저주받은 원숭이 녀석! 네 어미는 어디에 갔느냐? 너를 키운 남자와 여자는 어디에 갔느냐? 네가 죽인 불쌍한 어미들은 어디에 갔느냐? 그리고 그 어미들의 두 자식은 어디에 갔느냐? 동생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 이 저주받은 땅이 낳은 저주받은 원숭이야. 너에게 흐르는 피의 반이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 저주받은 땅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너는 혼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이 저주받은 땅이 낳은 저주받은 원숭이기 때문이다!”(155~156)

노조무는 카라반의 ‘저주’에 입술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웅크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그에게 카라반이 내뱉은 가래가 날아오는 걸 느끼며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노조무는 순간적으로 마유코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유코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노조무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의 절반은 ‘조선인’의 피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카라반의 ‘저주’에 노조무의 육체가 느낀 고통은 자신이 ‘조선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에 동반되는 고통인 것이다. 상기의 장면은 노조무의 공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스무 살이 된 노조무의 내면세계의 변화임에는 틀림없고, 실제 카라반과 마주했을 때 노조무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카라반의 말이 자신의 영혼에 직접 와 닿는 것을 느낀다. 그 때 노조무는 처음으로 어린나이었지만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일제주인문학 속의 혼혈아에게 민족적·문화적 아이덴티티로 고민하는 모습이 발견되기 어려운 것은, 혼혈아가 일본사회의 또 다른 타자로서 상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한인과 동일한 마이너리티로서 취급되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3.5 제일한인사회 속의 뉴커머

이카이노에서 자란 제일2세 김덕환(金德煥 1989:63~67)은 이카이노를 중심으로 한 제주출신자를 1세대, ‘신1세대’, ‘신신1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신1세대’란 일본의 고도경제성

장과 함께 이카이노지역에서 부흥한 헵샌들산업⁸⁾에 종사하기 위해 밀입국한 사람들이고, ‘신신1세대’는 한국에서 해외여행의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도일한 세대이다. 이처럼 도일한 시기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현상은 문학작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재일제주인문학 속에는 올드커머와 뉴커머와의 결절점이 되는 ‘신1세대’와 이후의 ‘신신1세대’를 뉴커머로서 재일제주인사회에서 새로운 타자로 등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원수일, 양석일 외에 김창생, 종추월과 같은 작가도 이카이노를 무대로 한 소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들과는 달리 현월은 “현실의 생활공간과는 거리가 먼, 상징성이 강한 공간”, “토지가 지닌 지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신화적 공간”(소명선 2009:300)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속에서 뉴커머는 이카이노사회의 ‘이물’로서 그려지고 있다. 『무대배우의 고독』에는 주인공 노조무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일본인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형태로 도일한 뉴커머 여성들,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와서 재일한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만료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백제의 김’과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 이러한 뉴커머 중에는 순응력이 부족한 성격 때문인지 언어와 관습의 장벽을 넘지 못해 본가에 가면 하녀 취급을 받는 노조무의 어머니와 같은 타입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제주도 출신이지만 야마모토부인과 같이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부 정도로만 여기던 남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부터 오만해져 제주도에서 익힌 ‘정치역학’을 발휘하여 육성회와 자치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타입도 있다. ‘백제의 김’은 노조무의 어머니의 동생이라 자칭하는 자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대마초와 각성제를 파는 제주도 출신의 남자다. “조선인인 많은 땅”(120)으로 알려진 이곳이 “형편없는 곳”, “형편없는 인간들만 모아놓은 곳”, “저주 받은 곳”(125)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만큼 뉴커머도 ‘저주받은’ 토지의 지력에 의해 ‘저주받은’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들의 집』의 경우, 집단촌이 형성된 초창기 때의 모습은 사라지고 현재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반반 정도이고 피부색이 조금 다른 자”(17)도 섞여 구성원들에게도 변화가 생겨났다. 그러나 나가야마는 여전히 집단촌의 경제적 지배자로서 군림해 있고, 깃돈을 빼돌리려 한 숙자에 대한 집단 린치는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카이노라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그려진 두 작품에서 뉴커머가 이방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단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토지의 지력’에 의해 모두가 ‘저주받은 땅’의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린다.

『초열(焦熱)』(『群像』2002.11)은 초등학교생인 사다코의 시각으로 삼촌을 중심으로 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한 움직임을 그리고 있는 단편이다. 사다코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재일한인에게 시집 온 여성이고, 이혼 후 사다코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와 있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사다코는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수업참관일에 어머니와 같은 발음을 하는 어머니, 즉 뉴커머 여성이 많아져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8) Hepburn sandal의 약자. 미국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영화<<사브리나(Sabrina)>>(1954)에서 신었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화학합성피혁으로 만든 구두를 말한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최전성기에는 하루에 12만 켤레를 생산하는 등 일본 전체 생산량의 60%를 이카이노에서 생산했다.

언제였던가. 김치가게 아저씨가 냉면관에서 삼촌 친구들을 때렸다.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한국에 돌아가라!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며 제주도 맛 김치는 어디에서도 살 수 있어, 이제 거기에서는 안 살거야라고 했다. 김치가게 아저씨는 옛날부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최근에 온 사람들을 굉장히 구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끊긴 삼촌같은 사람을 싫어한다고, 어머니가 나에게도 설명해 주었다. 같은 한국인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100)

이 소설은 뉴커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화자가 뉴커머 초등학교생이라는 점에서 올드커머와의 갈등 양상은 사다코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서술되고 있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2005년에 발표된 『이물(異物)』(『群像』2005.2)은 시점인물의 다양한 변화를 보이지만 「초열」의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 황사가 전 지역을 뒤덮은 날 주택지 주차장에서 혈흔과 뒤엉킨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나쁜 예감’과 함께 사건 자체가 살아 움직이듯 지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한다. 몇 가지 사건이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중층적으로 발생하고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한국식재료상을 운영하는 이케야마와 다카야마형제, 이들은 재일제주인 2세로 올드커머다. 그리고 1989년 제주도에 건너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재일한인 2세와 결혼한 고채영과 딸 사다코,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비자가 만료된 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고채영의 남동생 승신 등은 뉴커머이다. 여기에 졸업논문을 쓰기 위한 조사 명목으로 아시아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에 출입하는 리에코와 남자 친구인 사와다, 이케야마의 동급생인 이쿠타 마사요와 아들 다카시 등의 일본인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 이케야마는 ‘재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과 뉴커머를 구별하여 ‘재일’의 범주에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등 뉴커머에 대한 강한 반감과 혐오를 가진 인물이다. 화재와 다카야마형제의 사망, 리에코의 부상 등 살상사건으로 매듭지어진 이 사건은 마사요를 둘러싼 남성들의 치정문제가 초래한 결과로만 단정할 수 없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뿐 아니라 이케야마의 아버지 정대환, 다카야마형제의 어머니, 이쿠타 마사요의 아버지 등도 시점인물로 전쟁전의 시기부터 이 지역의 역사적 상황이 서술되고 있어, 사건은 이케야마의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축적된 독특한 지역성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이케야마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고 형무소에 수감되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사와다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제주도에 돌아가 있는 고채영 모녀까지 찾아가는 등 그 진상을 알아내려고 하지만 결국 명쾌한 해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소설은 끝이 난다. 이케야마와 고승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올드커머와 뉴커머와의 대립과 갈등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초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립양상이 서술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집」과 「무대배우의 고독」에서처럼 뉴커머도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정체모를 어둠의 힘에 압도되고 마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 즉 일본사회의 이질적인 존재인 재일한인이지만, 그들 사회의 또 다른 ‘이물’인 뉴커머도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속에 용해되어버리는 것이다. 고정된 시점에 의한 설명식의 전개가 아니라, 사건 자체가 소설의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고 뉴커머를 중심인물로 설정하

여 그 내면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거나, 올드커머와의 구체적인 대립양상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뉴커머를 올드커머와는 절대적 타자로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석범의 『한가한 날(虛日)』(『群像』2002.5)은 작가 김석범과 동일인물로 여겨지는 ‘나’와 뉴커머 김영아라는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뉴커머의 일본에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이 되어 있다. 잡지 편집, 인쇄 디자인, 통·번역 업무의 개인 사업을 하는 김영아와는 ‘나’가 뉴커머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잡지에 칼럼을 쓰게 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신오쿠보역(新大久保駅)에 내렸을 때 ‘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선로에 전락한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 윤원수의 환영을 본다. 두 사람의 화제는 윤원수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나’는 일본어학교의 부당한 처우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심한 송난미의 이야기에 분개하기도 한다. 이 소설은 실제 2001년 1월 26일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일본인 카메라맨과 한국유학생 이수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김석범의 뉴커머에 대한 시각을 픽션화한 작품이다. ‘나’는 뉴커머의 생활력과 근면한 생활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꿈과 목표를 위해 경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도일의 배경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가지고 있고, 민족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뉴커머는 언어, 민족성, 아이덴티티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로 출발한 ‘재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뉴커머수가 증가했다. 이쿠노구의 이마자토신치(今里新地)에는 한국요리점, 유흥업소,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뿐 아니라 김치상점의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들도 증가했다. 이들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이입되고, 지역의 일본인과 올드커머 사이에 다양한 문화적 마찰이 일고 있으며, 특히 올드커머와 뉴커머와의 사이에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조 속에 스기하라 도루(杉原達 1998:30~31)는 “일본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지배적인 삶의 방식에 동화할 것을 사회적으로 강요당해 온 ‘재일’이 새로 들어온 동포에 대해 공포와 배제의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민족분단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것을 “생활 속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 재일한인사회 속에서 굴절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일제주인문학 속의 뉴커머가 재일사회의 ‘이물’로서 그려지는 것은 그들이 일본인과 재일한인 사이의 경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혹은 강요되어온 재일한인의 아이덴티티에 위기감을 주기 때문이다. 스기하라의 지적과 같이 재일사회 속에 “생활 속의 오리엔탈리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일한인이 그들의 아이덴티티 유지를 위해 뉴커머를 외부로부터 이입된 이질적 존재로서 배제하고 타자화하게 된 결과일 것이다.

4. 오키나와문학 속의 마이너리티

오키나와문학 속의 마이너리티는 재일제주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희생자, 피차별자, 피식민자, 피점령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아래 표와 같이 재일제주인문학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가 타자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⁹⁾ 오키나와문학에서는 이러한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를 중심으로 그들 문학이 형상화하고 있는 마이너리티이미지를 고찰하겠다.

마이너리티	작 품	
미국인	水戸博『花の果て』(『月刊タイムス』1949.12) 亀谷千鶴子『すみれ匂う』(『うるま春秋』1950.05) 大城立裕『カクテルパーティ』(『新沖縄文学』1967.02) 東峯夫『オキナワの少年』(『文学界』1971.12) 長堂英吉『我羅馬テント村』(『新沖縄文学』1973.06) 源河朝良『青ざめた街』(『琉球新報』1975.11.07) 又吉栄喜『カーニバル闘牛大会』(『琉球新報』1976.11.17) 新崎恭太郎『蘇鉄の村』(『新沖縄文学』1977.01) 中原普『銀色のオートバイ』(『琉球新報』1977.11.13) 下川博『ロスからの愛の手紙』(『琉球新報』1978.11.12) 又吉栄喜『ジョージが射殺した猪』(『文学界』1978.03) 又吉栄喜『パラシュート兵のプレゼント』(『沖縄タイムス』1978.06) 比嘉秀喜『テブのボンゴに揺られて』(『琉球新報』1980.11.30) 上原昇『一九七〇年のギャング・エイジ』(『琉球新報』1982.11.10) 吉田スエ子『嘉間良心中』(『新沖縄文学』1984.12) 長堂英吉『伊佐浜心中』(『群像』1992.02) 長堂英吉『エンパイア・ステートビルの紙ヒコーキ』(『新潮』1993.11) 大城立裕『ふりむけば荒野』(『新潮』1995.08) 山入端信子『隣の女』(『EDGE』1997.06) 大城立裕『恋を売る家』(『新潮』1997.09) 又吉栄喜『波の上のマリア』(角川書店、1998.08) 目取真俊『希望』(『朝日新聞』夕刊 1999.06.26) 松田陽『マリーナ カラー ナチュラル シュガー スープ』(2001年度 第29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	
	喜舎場順『暗い花』(『琉大文学』1955.12) 長堂英吉『黒人街』(『新沖縄文学』1966.04) 長堂英吉『灰色の群像』(『新沖縄文学』1967.02) 長堂英吉『桑梯子の墓』(『新沖縄文学』1969.08) 又吉栄喜『窓に黒い虫が』(『文学界』1978.08) 長堂英吉『伊佐浜心中』(『群像』1992.02) 松田陽『マリーナ カラー ナチュラル シュガー スープ』(2001年度 第29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	흑인
혼혈아	山里永吉『マアモント氏の写真』(『南島』1926.07) 福地恒夫『風と風葬』(『琉大文学』1960.12) 譜久村毅『ある歪み』(『琉大文学』1962.06)	

9) 본문에서 언급하게 될 작품의 출처 정보는 이 표의 내용을 참조 바람.

	譜久村雅捷「ジョージの沖縄」(『新沖縄文学』1970.12) 長堂英吉「帰らぬいざ」(『新沖縄文学』1971.08) 田中康慶「混血児」(『新沖縄文学』1972.12) 又吉栄喜「窓に黒い虫が」(『文学界』1978.08) 又吉栄喜「シェーカーを振る男」(『沖縄タイムス』1980.06) 喜舎場直子「ジュリオの涙」(1985年度 第13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佳作) 崎山多美「風水譚」(『へるめす』1997.01) 下地芳子「アメリカンタンポポ」(『文学界』1997.06)	
조선인	久志富佐子「滅びゆく琉球女の手紙」(『婦人公論』1932.06) 山之口猷「天国ビルの斉藤さん」(『中央公論』1939.01) 大城立裕「神島」(『新潮』1968.05) 阿嘉誠一郎「世の中や」(『文芸』1975.12) 知念正真「人類館」(『新沖縄文学』1976.10) 又吉栄喜「ギンネム屋敷」(『すばる』1980.12)	
대만인	迎里勝弘「蟹釣り遊び」(1978年度 第6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佳作) 目取真俊「魚群記」(1983年度 第11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 平田健太郎「ニュータウン」(1984年度 第12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佳作)	
필리핀인	宮城聡「ホノルル移民局」(『三田文学』1937.01) 阿嘉誠一郎「世の中や」(『文芸』1975.12) 崎山麻夫「ダバオ巡礼」(1997年度 第25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 大城立裕「クルスと風水井」(『群像』2001.09) 大城裕次「ブルー・ライブの夏」(2002年度 第30回琉球新報短編小説賞)	
중국인	宮城聡「ホノルル移民局」(『三田文学』1937.01) 大城立裕「カクテルパーティ」(『新沖縄文学』1967.02)	
인도네시아인	太田良博「黒ダイヤ」(『月刊タイムス』1949.03)	

4.1 미국인

오키나와의 전후가 미군의 점령정치로 시작된 만큼 미군과 미군기지문제는 오키나와문학의 주요한 테마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점령과 오키나와문학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¹⁰⁾ 논자는 특히 미국인을 마이너리티로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1972년 5월15일 일본으로 복귀된 후에도 미군기지는 여전히 남겨둔 상태이고 현재 미군의 동반가족 수까지 합하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오키나와에 거주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권력구조 측면에서의 미국은 마이너리티라 보기 어렵지만,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에서는 미국인도 마이너리티임에는 틀림없다.

마이너리티로서의 미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점령자 혹은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자로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히가 슈키(比嘉秀喜)의 「똥보 봉고에 흔들리며(デブのボンゴに揺られて)」(『琉球新報』1980.11.30)는 종래의 미병과 오키나와여성의 관계가 전도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복귀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미국인 프레디가 경영하

10) 오키나와문학 속의 미국 및 미국인에 관한 연구는 石坂藏之助『沖縄 基地 文学』(新日本文学会、1999.2), 『占領と文学』編集委員会『占領と文学』(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1993.10), 浦田義和『占領と文学』(法政大学出版局、2007.2), マイク・モラスキー鈴木直子訳『占領の記憶記憶の占領—戦後沖縄・日本とアメリカ』(青土社、2006.3), 中程昌徳『アメリカのある風景—沖縄文学の一領域』(ニライ社、2008.9) 등과 같은 성과를 들 수 있다.

는 카펫 세탁소에서 세탁물 배달과 수거를 하는 화자가 프레디를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이 격화되었을 무렵 프레디는 오키나와의 부대에 배속되어 부대에서 클럽을 결성하여 밴드맨으로 활동하던 중 오키나와 여성 교코를 만나 결혼을 한다. 제대 후 교코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그녀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일본에 귀화하여 정착해 살고 있다. 좋아하는 음악도 고향에서의 생활도 포기한 채 도산 직전의 세탁소 일을 묵묵히 하는 프레디에게는 오키나와여성에 대한 점령자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키나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미국인 마이너리티의 모습만이 부각되고 있다.

우에하라 노보루(上原昇)의 「1970년의 갱 에이지(一九七〇年のギャング・エイジ)」(『琉球新報』1982.11.10)는 스무살이 지난 화자가 1970년을 다른 지역, 다른 세대와는 공유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의 시기로서 10년 전의 소년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의 소설이다. “일본의 헌법이 시행되지 않은 당시의 오키나와에서 미병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범죄가 발생해도 그것을 재판할 권리”(297)를 갖지 못했던 복귀전의 오키나와에서 미군가족 거주지에 인접한 마을에 사는 소년들이 거주지 내에 사는 미국인 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교사와 어른들에게 고하지 않고 스스로 대항해 나간다. 오키나와 소년들의 보스였던 ‘나’는 ““식민지”에 군림하는 자의 자식들”도 “견고한 요새”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그 속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새장 속의 새”(300)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화자는 점령하의 오키나와와 미국의 정치적 구도와는 달리 미국인 소년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시절로서 1970년의 소년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1995년 「돼지의 보은(豚の報い)」(『文学界』1995.11)으로 제114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榮喜)의 「카니발 투우대회(カーニバル闘牛大会)」(『琉球新報』1976.11.17)는 오키나와 소년의 눈을 통해 미국인을 마이너리티로 그리고 있다. 남미계통의 작은 몸집의 외국인=미국인이 탄 자동차를 투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끌고 가던 소가 들이받아 오키나와인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퇴약별 아래서 격분한 미국인은 변상을 요구하는 듯 큰 소리로 협박하고 있지만, 오키나와인은 소고뼈를 쥔 채 고개만 숙이고 있다. 소년은 누구도 중재에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무력한 군중의 모습에 화가 난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수습된다”(112)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미점령하의 오키나와인의 모습과 겹쳐지고, 작가의 오키나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읽어내기는 쉬울 것이다. 그런데 지칠 줄 모르고 계속 화를 내는 ‘작은 외국인’을 보며 소년은 다른 미국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 평소에 주위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아서 그 울분을 오키나와인을 상대로 터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순간에 투우를 즐기고 아이들에게 관대하여 인기가 많은 거구의 먼스필드씨가 군중의 담을 뚫고 나와 상황을 수습한다.

소년은 작은 외국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느꼈다. 어둡게 입을 다문 얼굴을 소년은 봤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타협을 해서 작은 외국인은 오늘밤 잠들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소년은 생각했다. 작은 외국인은 어찌서 끝까지 자기주장을 펴지 않았던 걸까. 소년은 갑자기

작은 외국인이 불쌍해졌다.(117)

성격과 체구가 대조적인 두 사람의 미국인을 등장시켜 미국인을 획일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¹¹⁾ 오키나와 소년의 시각은 아이들에게 호의적인 먼스필드에게로 치우쳐 있지 않고, 사태가 수습이 되자 오히려 ‘작은 외국인’을 동정하게 되며, 오키나와인 군중 속에서 ‘작은 외국인’을 오히려 마이너리티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78년도 제8회 구슈예술제문학상을 수상한 마타요시 에이키의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ジョージが射殺した猪)』(『文学界』1978.3)에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오키나와로 온 미군병사의 시점으로 거대한 폭력시스템인 전쟁 자체에 대한 시각과 오키나와인에 대한 시각을 그리고 있으며, 베트남으로의 파병 직전의 광기와도 같은 공포와 백인과 흑인의 대립상황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 조지는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실제 죽인다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동료들처럼 술이나 여자로도 해결하지 못하며 잘못 들어간 흑인거리에서 흑인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공포와 패전국의 “열등민족”(119)인 오키나와 여자는 강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만의 하나라도 질 염려가 없는 무력한 부녀자에게 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135)는 조지의 동료, 상관, 흑인, 여자들에 대한 살의(殺意)는 철과편을 쭉고 있는 노인에게로 향한다. 노인에게서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는 눈, 나를 위축시키는 눈”(137)을 발견하고 불가해한 타자,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온 노인을 멧돼지로 보고 사살한 것이다. 점령자, 지배자로서의 미병이 아니라 피해자 의식으로 가득찬 주인공 조지는 동국인인 미국인뿐 아니라 오키나와인에게 대해서도 타자성을 느끼는 마이너리티로 그려지고 있다.

4.2 중국인

명치일본으로 편입되기 전 중국(청)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오키나와지만 문학텍스트 속에 중국인이 등장하는 예는 의외로 많지 않다. 중국인은 오키나와의 역사와 사회생활, 국제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중국인 마이너리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작품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시로 세츄(山城正忠)의 『구넨보(九年母)』(『ホトギス』1911.6)의 경우 청일전쟁 시기에 청을 지지하는 보수세력과 일본 지지세력이 대립하는 오키나와의 혼란스러운 사회상황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고, 이케미야 세키호(池宮城積宝)의 『우쿠마순사(奥間巡査)』(『解放』1922.10)는 중층적인 차별 구조를 그려내기 위해 피차별부락의 기원을 중국계 자손으로 설정하고 있다.

11) 오카모토 게이토쿠(岡本恵徳)는 “종래의 작품이 미병과 오키나와인이 대립하는 상황을 그릴 때 시점이 오키나와인 측에 놓여지기 때문에 결과로서 미병의 묘사법이 획일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마타요시의 소설은 그 획일적인 묘사를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인을 그리는 종래의 수법 자체에 대한 작자의 비판으로 해석하고 있다. 岡本恵徳 『現代文学にみる沖縄の自画像』(高文研、1996.6) p.151

미야기 소(宮城聡)의 「호놀룰루 이민국(ホノルル移民局)」(『三田文学』1937.1)은 미국행 배를 탄 오키나와 청년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출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이민국으로 보내져 감금된 생활을 하면서, 이민국 시설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당시 아시아국 중 미국으로의 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한 중국인의 선례로 인해 일본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식이 호놀룰루의 이민국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의 사고 속에 발견된다. 쉽게 입국허가가 나지 않는 초조와 불안이 중국인에 대한 굴절된 의식과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오키나와문학사상 첫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으로 문학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오시로 다츠히로의 「칵테일파티(カクテルパーティ)」(『新沖繩文学』1967.2)의 경우 중국인이 미국-일본-오키나와-중국이라는 국제적 관계 설정을 위해 조형된 인물이긴 하지만 상기의 작품들과는 달리 개성이 부여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칵테일파티」는 ‘나’를 화자로 하는 전반부와 ‘나’가 2인칭 ‘너’로 불리는 회곡 형식에 가까운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인 밀러가 주최하는 칵테일파티에 초대받은 ‘나’는 오키나와인 으로서는 특권적인 위치에 있지만 미국-일본-오키나와라는 정치구도 속에서는 피해자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그러한 속내는 숨기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 밀러와 모건, 중국인 변호사 손, 일본인 신문기자 오가와, 오키나와인 ‘나’로 구성된 자리에서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을 때 보인 ‘나’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전반부는 파티 도중 모건의 아들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와 손이 함께 모건의 아들을 찾으러 나가게 된다. 모건의 아들이 행방불명되기 전까지 ‘나’가 알고 있었던 손은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대륙에서 홍콩으로 망명했고, 중국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이 살해당했으며 대륙에 남겨두고 온 부인과 한 명의 자식과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정도였다. 손은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던 중경(重慶)에서 당시 4살이던 자신의 아들이 행방불명되었던 일과 찾아해맨 아들을 일본군 헌병대가 보호하고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모건의 아들은 오키나와인 메이드가 선의로 주인의 허락없이 그녀의 집에 다니러 갈 때 함께 데리고 간 사실이 밝혀지는 것으로 전장은 끝이 난다.

후장에서는 ‘국제친선’이라는 가면의 논리에 순응적인 ‘나’, 지배권력의 질서 안에서 조화되려고 한 ‘나’를 비판적으로 상대화하는 시점이 도입된다. 파티에서 돌아온 ‘너’는 모건의 딸이 행방불명되었을 시각에 자신의 딸이 미병 하리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격분한 ‘너’는 하리스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상해 혐의로 딸이 고소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미점령하의 오키나와는 미군병의 범죄를 재판할 수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딸의 사건을 고소하고자 ‘너’는 가장 먼저 미국인 밀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이어서 중국인 손에게 딸의 재판에 입원 중인 하리스가 증인으로 출두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한다. 손은 ‘너’의 부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승낙한다. 그러나 역시 하리스는 미군의 특권으로 증인 출두를 거부한다. 병원을 나온 후 동행했던 오가와가 손에게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미국과 오키나와의 관계로 보면 현재의 오키나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냐고 하자, 손은 두 사람에게 1945년3월20일에 어디에서 무엇

을 했냐고 묻는다. 이날은 손의 아들이 행방불명된 날로 실은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유괴당한 것이었고, 그 사이 자신의 부인은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손의 이야기를 통해 ‘너’는 중국인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오키나와인이 중국인에 대해서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중국인 손은 일본의 제국역사의 궤적을 추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일본제국의 역사 속의 ‘타자’적 존재로 제국역사의 희생자이며, 오키나와인 또한 일본제국의 일구성원으로 중국인에 대한 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자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 ‘타자’는 ‘나’로 하여금 “강직된 피해자 의식과 편협한 오키나와 내셔널리즘에서 해방되고 아시아적 문맥”(山里勝己 1999:183)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 ‘조선인’(한국인)

야카비 오사무(屋嘉比収 2003:241)에 의하면 오키나와 역사연구가인 히가 순초(比嘉春潮)는 1910년9월7일자 일지에 “지난달 29일, 한일합병. 만감이 교차하기 이를 데 없고, 글을 쓸 수 없다.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류큐사(琉球史)의 진상이다. 사람들 말하길, 류큐는 장남, 대만은 차남, 조선은 삼남이라고”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일본본토의 류큐에 대한 멸시에 분개한 문장이지만 식민지 중에서도 ‘삼남’으로 취급되어진 조선인이 오키나와문학 속에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구시 후사코(久志富佐子)의 『멸망해가는 류큐여자의 편지(滅びゆく琉球女の手紙)』(『婦人公論』1932.6)는 동경에서 살아가는 오키나와인의 굴절된 의식과 이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오키나와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화자는 본토에서 살아가는 “류큐의 인테리”에게는 “조선인과 대만인과 같이 자신들의 풍속습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담함”(97)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화자에게 있어 조선인과 대만인은 본토의 오키나와인과는 달리 그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당당히 표현하는 마이너리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키나와인에게 있어 식민지 종주국에서 살아가는 조선인의 이미지가 동일하지는 않다. 아마노구치 바쿠(山之口篁)의 『천국빌딩의 사이토씨(天国ビルの斉藤さん)』(『中央公論』1939.1)는 차별받기 때문에 출신을 밝히지 못하는 조선인을 오키나와인 ‘나’의 시점으로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사이토씨는 탁음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해 자신의 이름도 사이도(saido)로밖에 발음할 수 없는 인물로 대부분 조선인임을 눈치채고 있으나 본인은 고향을 규슈라며 출신을 숨기려 한다. ‘나’는 사이토씨가 주변의 짓곳은 호기심과 곤경에 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민족적인 것”에 대해서 터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와 사이토씨 사이에 “묵묵히 흐르고 있는 것”, “인간에게 흔히 있는 애정의 흐름”(317)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차별자로서의 조선인을 류큐인인 자신과 동일시한 데서 오는 자기연민과도 같은 감정으로, ‘나’의 눈이 비친 사이토씨는 어디까지나 “식민지 종주국에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으로 고뇌하는 모습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조선인’”(소명선 2011:540)이다.

전후 오키나와문학의 가장 큰 테마는 오키나와전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오시로 다즈히로는 『가미지마(神島)』(『新潮』1968.5)를 통해 주인공이 오키나와전쟁에 관한 언설 속에서 은폐되어 왔던 집단자결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을 오키나와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조명하고 있다. 일본복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를 배경으로 전쟁 체험 세대와 이후 세대간의 오키나와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마음속의 27도선”(328)을 지우지 못하는 오키나와인에게 있어서의 복귀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집단자결에 관해서는 함구하려고만 하는 전쟁체험 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속에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에 대해서는 가해자이기도 한 오키나와인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쟁이라는 폭력 속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중층적으로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다.

마타요시 에이키의 『자귀나무저택(ギンネム屋敷)』(『すばる』1980.12)은 오키나와의 전후문학에 있어서 처음으로 조선인 군부와 중군위안부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작품이다. “역사의 후유증의 갈라진 틈”으로 보이는 “약한 인간들의 악성”(又吉栄喜 1980:125)을 오키나와인의 조선인에 대한 공갈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를 통해 그려내고 있고, 조선인을 둘러싼 근거없는 소문들과 등장인물들의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서 1950년대의 오키나와사회에 존재하는 중층적인 차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밝혀지는 조선인의 과거—강제연행으로 오키나와의 비행장 건설 현장에서 징용한 군부 출신이었고, 애인 강소리도 간호사란 명목으로 끌려와 위안부를 강제당한 사실 그리고 패전 후 오키나와인 상대의 매춘부로 전락한 강소리를 찾아냈으나 자신의 존재를 거부당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은 화자로 하여금 잊으려고만 해 온 오키나와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전쟁 때 본 광경은 아직 생생하다. 중년의 조선인이 울부짖으며 양쪽 팔과 다리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4명의 오키나와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조선인의 야윈 가슴을 총검으로 천천히 끌어내리고 있던 일본병은 갑자기 엷은 미소를 없애고 스파이라고 말하며 이를 갈았다. 그 직후에 조선인의 가슴 깊숙이 총검은 꽂혀 들어갔고 심장이 파헤쳐졌다. 나는 굳게 눈을 감았지만 그 기계가 빼겨거리는 듯한 조선인의 목소리는 지금도 귓전을 맴돈다.(172~173)

조선인의 이야기는 조선인 학살사건뿐 아니라 6살 된 아들의 죽음과 그 충격으로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가정이 파탄된 화자 자신의 고통스런 기억까지 떠올리게 한다. “조선인은 전쟁이야기를 했다. 나는 잊으려고 하는데……. 조선인의 최악은 이것이다”(188)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오키나와인을 피해자로만 인식해 온 “안정된 동일성”(新城郁夫 2007:149)이 흔들리기 시작한 화자의 내면의 불안을 읽을 수 있다. 『자귀나무저택』은 일본·미국/오키나와에 대해 가해자/피해자라는 구도로만 인식해 온 오키나와전쟁의 인식에 오키나와/조선을 또 다른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제시함으로써 오키나와전쟁을 상대화하고 있으며 이 때 조선인은 오키나와의 전쟁사를 상대화시키는 타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소리라는 여성의 존재가 조선인 남성에게 의해 상황 설명적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전쟁이라는 폭력시스템 속에 내던져진 중군위안부의 목소리가 역사의

암흑 속에 파묻힌 상태로 끝나고 만 점은 이 소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4 대만인

오키나와전쟁의 기억과 전승의 문제를 다룬 『물방울』로 1997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메도루마 슌의 1980년대 작품 중 오키나와 사회 속에서 차별받는 대만인 여성을 그린 작품이 있다. 1983년 제11회 류큐신보단편소설상을 수상한 『어군기(魚群記)』는 소년 마사오의 시각으로 1970년 전후의 파인애플공장이 있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성적·인종적·민족적 차별의 양태가 그려지고 있다. 파인애플은 1930년대 후반 대만에서 오키나와에 신작물로서 유입되었고 이때 대만인의 이민과 함께 파인산업이 시작되었으며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걸쳐서는 파인애플 붐이 일기도 했다. 마사오의 아버지는 이 파인공장에 납품하는 파인애플 생산자이고, 마사오의 형도 파인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마사오는 친구들과 함께 화살침을 쏘아 틸라피어를 낚아올려 안구의 감촉을 즐기는 잔인한 놀이에 도취해 있다.

파인캔을 소독한 후의 열기가 쏟아부어지는 거기에는 1년 내내 열대산 틸라피어의 엄청난 무리가 멀리서 봐도 그것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글거리고 있었다. 검은 비구름처럼 몇 겹으로 서로 밀치락거리며 틸라피어는,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파인 찌꺼기와 식당의 밥찌꺼기를 찾아 탐욕스런 입을 벌리고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60)

나는 항상 틸라피어의 솟아오른 부드러운 안구를 손가락 끝으로 애무했다. 비린내나는 미끈함이 손가락 끝의 미끄러짐을 도와, 나는 손가락 끝에 전해오는 투명한 탄력의 미묘한 자극을 마음껏 맛보았다. 기다리지 못한 N의 재촉이 나를 정신차리게 하고, 틸라피어는 N의 손에 건네졌다. 그렇게 하여 우리들은 번갈아가며 자신만의 물고기 몸체 즐기는 법을 맛보았다. 마지막으로 나의 흉내를 내어 안구를 만지며 황홀에 잠겨있는 S와, 나는 깊은 만족의 미소를 서로 주고받았다.(61)

틸라피어는 파인공장의 폐수로 오염된 강에서도 “탐욕스럽게 오물을 먹고 돌아다니며 재래의 어류를 위협하기까지 급속하게 번식”(68)하는 어종이다.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으로 재래종을 위협하는 틸라피어는 외래 자본과 산업에 침식되어가는 오키나와를 상징한다. 소년들의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파인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을 훑쳐보는 것이다. 그녀들은 파인애플이 재배되는 시기에만 공장 일을 하러 대만에서 온 계절노동자이다. 마을 어른들은 여공들을 멀리서와 외잡스런 뉘앙스를 담아 ‘대만여자’라 불렀고 소년들도 이를 흉내내 ‘대만여자’라 불렀다. 마사오는 특히 K란 여성에 관심을 가졌고 오키나와여자들과는 달리 새하얗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K에게서 처음으로 성적 욕망을 느낀다. 그러나 마사오의 아버지는 ‘대만여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마을 소년들은 ‘대만여자’를 경멸하며 K가 건네 준 파인캔을 내던지기도 한다. 어느 밤 마사오는 친구들과 여공들의 숙소를 엿보러 갔다가 자신의 형이 K의 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공들이 계절노동을

끌내고 돌아간 후에는 아버지도 K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로써 아버지가 ‘대만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와 어른들의 대만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도 이해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대만인 여공의 이미지는 강한 생명력으로 오염된 강에서도 번식하는 외래종 틸라피아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틸라피아는 하얗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대만여자’의 “페티시적 대리물”(朱惠足 2001:22)이라 할 수 있다. 틸라피아를 통한 소년들의 “신체감각의 표출”(新城郁夫 2003.11.1)과 안구 탐닉은, 그들이 대만인 여성을 ‘대만여자’라 부르며 멸시하는 언어적 폭력의 행사와 유사하다. 오키나와인과는 다른 외모(하얗고 아름다운 피부)가 차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계절노동자를 매춘여성의 이미지로 연결시키는 행위에는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인에 대한 제국외식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5 인도네시아인

1949년 2월에 창간된 『월간타임스(月刊タイムス)』를 통해 미군정하의 첫 소설작품으로 오타 료하쿠(太田良博)의 『검은 다이아(黒ダイヤ)』(『月刊タイムス』1949.3)가 발표되었다. 일본군이 점령 중이던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을 작자의 종군체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오키나와전후문학의 효시가 인도네시아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은 1943년 이후 전세가 악화되자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된 방위의용군을 발족한다. 일본어 교육과 통역 임무를 맡은 화자는 의용군 편성에 앞서 실시된 간부 양성 교육에서 검은 다이아와 같은 눈동자를 가진 파니양 소년을 알게 된다. 그 후 연합군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일본군에 이어 대영제국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인도네시아 혁명군 속에서 파니양을 발견한다. “아름다운 청춘과 순결을 민족을 위해 바치고 피와 먼지 속에서 충을 쥐고 싸우는, 애처롭고도 기특한 그 뒷모습”(12)을 지켜보는 화자에게 파니양 소년에 대한 “인간적인 친근감과 공감”(新川朗 1992:96)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감정은 파니양 개인에 대한 친근감인지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에 대한 공감인지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다. 민족해방군을 묘사한 장면에서 화자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독립인가 죽음인가’라든가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표어를 색 페인트로 추악하게 덕지덕지 쓴 열차가 반톤 시내에 들어올 때 수상쩍은 청년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다. 그 후 청년들과 우리들은 시가전을 벌이고 일본군은 3일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시외로 내쫓았다.(11)

화자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침략자인 일본군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아라카와 아키라(新川明 1992:98)는 화자가 “본질적으로 침략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의심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고, 일본군인 ‘자신’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영국군(새로운 침략자)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족해방운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렸어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해방운동에 대한 시각을 오키나와의 전후 상황에 대한 작자의 시선으로 읽는다면 신조 이쿠오(2003:25)의 지적처럼 피점령자인 파니양 소년=오키나와인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오키나와 및 오키나와인을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6 필리핀인

앞서 살펴본 『호놀룰루 이민국』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 희망자 속에 필리핀인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민국 내부의 혼잡함을 설명하는 정도이고, 아가 세이치로(阿嘉誠一郎)의 『세상(世の中や)』(『文芸』1975.12) 또한 오키나와인보다 상위계층에 군림하는 미국계 회사의 한 사원으로만 그려져 있다. 그러나 1997년 제25회 류큐신보단편소설상을 수상한 사키야마 아사오(崎山麻夫)의 『다바오 순례(ダバオ巡礼)』는 1942년 필리핀을 점령한 제국역사의 기억과 상처를 그린 작품으로 필리핀인이 직접 등장하고 있다. 외삼촌이 필리핀에서 전사하여 어머니를 대신해서 참가하게 된 화자가 필리핀 위령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공항에서 동향의 선배 하루오와 재회하고, 다바오에서 생이별한 하루오의 여동생 찾기에 달려드는 이야기이다. 화자인 ‘나’는 어린 시절 하루오와의 싫은 기억을 떠올리며 거리를 두고자 했으나, 위령제가 시작된 1968년부터 어머니 도미와 함께 매년 참가해 왔다는 말을 듣고 동행하게 된다. ‘나’의 기억 속의 하루오 어머니는 일본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진 인물이었다. 민다나오에서 징용된 남편을 잃은 그녀는 히노마루 계양운동이 한창일 때 축일에도 히노마루를 계양하지 않았고, 당시 방언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의 교육방식에도 불만이였다. 다바오공항에 도착한 일행들이 민탈묘지 등을 돌며 위령제를 지내는데 하루오는 일행의 공식일정 외의 시간을 이용해 여동생 찾기에 몰두한다. 단독 행동에 대한 책임자의 염려도 있어 하루오와 동행하게 된 화자는 그의 여동생 찾기에 대한 집념에 놀란다. 하루오는 바에서 일하는 에드나라는 여성을 여동생이라고 단정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에드나의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자신의 딸은 틀림없는 필리핀인이라고 하며 “일본인은 옛날에는 힘으로, 지금은 무엇이든 돈”(93)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일본인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인다. 그러나 하루오는 지치지 않고 엘버트라는 농부가 안내해 준 또 한명의 여성을 만난다. 암투병중인 헬렌은 미군상대의 창부였으나 후에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창부생활을 해 온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이 하루오의 여동생이 아님을 밝히지만 하루오의 행동은 막무가내다. 헬렌을 여동생이라 믿는 하루오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병원비와 생활의 원조를 약속한 후 돌아온다. 이 소설은 필리핀에서 전사한 오키나와인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전경화함으로써 제국주의전쟁의 희생자인 필리핀인의 상처는 은폐되고 있다. 필리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위령제와 하루오의 일방적인 행동은 일본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행위로, 점령자로서 군림했던 태평양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일본인에게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에드나의 어머니와 같은 필리핀인의 상처는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도 30회 류큐신보단편소설상을 수상한 오시로 유지(大城裕次)의 『블루 라이브의

여름(ブルー・ライブの夏)』에는 오키나와에서 살아가는 필리핀인이 등장한다. 재즈 카페의 마스터이자 재즈피아니스트인 미겔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수재였으나,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미군기지의 장교 클럽의 권유로 일본복귀 전의 오키나와로 오게 된 인물이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은 오키나와재즈의 황금기였으나 현재는 재즈 애호가들만 향유할 뿐이다. 재즈 카페의 손님인 ‘나’가 화자로 재즈 연주자들의 공연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연주 도중 오키나와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러 나온 형사들에게 밴드맨의 한 사람인 히가가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전 취객이 미겔을 향해 “어이 필리핀 놈, 왜 여기에 있는 거야!”(266)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재즈피아니스트 미겔을 통해 일본본토로부터 차별받는 오키나와사회가 혼혈아와 필리핀인 등 인종에 의한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 모순된 실태를 그리고 있다.

4.7 흑인

미군병이 등장하는 소설 중에는 백인과 인종적 대립 갈등관계와 차별구도, 흑인에 대한 오키나와의 차별적인 시각 혹은 반대로 친밀한 관계를 그린 작품 등 흑인을 중심인물로 다룬 작품이 다수 존재한다. 기사바 준(喜舎場順)의 『검은 꽃(暗い花)』(『琉大文学』1955.12)은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가난한 농촌 출신의 노부코를 주인공으로 하는 미군과 오키나와여성을 테마로 한 작품이다. 노부코는 흑인 조의 허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노부코는 미군들에게 있어 오키나와여성은 애완동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우월의식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조에게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조와 함께 미국의 서부개척사를 다룬 영화를 보는 노부코의 내면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인디언은 왜 망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인디언의 필사적인 방어, 공포로 죽은 듯한 인디언 노파, 벼랑에서 떨어지는 인디언의 젊은 남자, 말에서 떨어져 말에게 짓밟히는 남성들의 얼굴을 보니 노부코는 공연히 화가 났다. 그렇다고 해도 왜 인디언은 저런 영화에 출연하는 걸까. 엄청난 기분이 나뻐다.(115)

인디언의 역사가 오키나와와 겹쳐지고, 언제나 약자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 오키나와의 현실에 화를 내고 있는 노부코의 모습이다. 노부코가 흑인 조에게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은 백인 미국인에게 있어 약자인 흑인과 인디언에 대한 연민과 자기동일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와 자신의 현실, 그리고 고향에서 빈핍한 생활을 하는 불행한 농부들의 모습이 ‘어두운 꽃’으로 비유되고 있다.

나가도 에이키치(長堂英吉)의 『흑인거리(黒人街)』(『新沖繩文学』1966.4)에는 흑인 상대의 술집을 하는 우메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오키나와전쟁의 기억과 미군기지 오키나와의 현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고자(コザ)거리의 혼란한 모습, 백인병과 흑인병의 대립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흑인 상대의 영업을 하지만 백인과 흑인에 대한 시각은 동일하고 미

군기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한 여성의 삶을 그리는 것에 중점이 놓여진 작품이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오사카의 유곽에서 창부생활을 하던 우메는 전쟁 중에는 “유곽에서 송출되어 위안여자정신대라는 것에 들어가 중국대륙, 미얀마, 자바, 필리핀, 중국에는 수마트라의 오지까지 몸을 팔고 다녔”(18)다. 전쟁이 끝난 후 오키나와에 돌아와서 흑인만을 상대하는 가게를 하던 우메는 흑인병과 백인병과의 난투극으로 가게가 파손되고 영업허가마저 취소당하게 된다.

마타요시 에이키의 『창에 검은 벌레가(窓に黒い虫が)』(『文学界』1978.8)도 베트남전쟁이 한창인 오키나와의 A사인(미군영업허가) 바가 무대가 되고 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바에서 일하는 미군과 오키나와여성들의 생태를 화자인 ‘나’가 관찰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혼혈의 정박아를 키우고 있는 마사코, 자기 자신 혼혈이면서 흑인을 경멸하는 다카코, 흑인의 허니인 밋치, 초등학생이면서 미군병의 허니가 되겠다는 밋치의 여동생 유키코 등 다양한 여성이 등장한다. 화자인 ‘나’의 흑인에 대한 태도는 흑인의 허니인 밋치마저도 “검둥이 냄새”(93)가 난다며 경멸하는 다카코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밋치가 흑인 미키의 허니라는 점도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화자의 흑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시선은 작품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

2001년도 제29회 류큐신보단편소설상을 수상한 마츠다 아키라(松田陽)의 『마린 컬러 내추럴 슈거 스프(マリン カラー ナチュラル シュガー スープ)』는 흑인을 사랑하는 여성의 독백 형식의 소설이다. 화자는 흑인과의 사랑을 다룬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의 『베드타임 아이즈(ベッドタイムアイズ)』(『文芸』1985.12)의 여주인공과 같은 아메쵸(미국인 남성과 교제하는 일본인 여성)이다. 그녀의 흑인에 대한 편애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호와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흑인만을 상대하고 있다. 화자를 비롯해 미군상대의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흑인을 좋아하는 공통된 이유는 흑인들의 댄스와 패션 감각, 그들이 가진 음악세계에 대한 동경에서이고, 화자인 ‘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아메쵸가 된 계기이기도 한 올론이라는 흑인과의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흑인을 편애하는 여성들의 내면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동경에서 일했을 때 본토인에게 차별당한 경험을 가진 나나라는 여성은 노골적으로 백인 손님을 기피하는데 그 이유를 “흑인은 미국사회에서 백인에게 오랜 동안 계속 학대받고, 차별받아와서, 가령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의심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계속 박해당해 왔잖아. 그 점에서 오키나와의 인간도 본토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일을 당해 왔다고 나는 생각해.”(91)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게 점령당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 흑인 또한 미국인이지만, 그녀에게 있어 흑인은 오키나와와 동일한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더 끌린다는 것이다. 소설 속의 여성들은 흑인 교회에서 흑인들과의 교류도 가지는 등,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의해 흑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오키나와인의 흑인에 대한 시각은 미국이라는 국적으로 백인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백인의 식민지제국 역사의 피지배자이며 피차별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고, 미점령의 역사를 가진 오키나와인과는 동일

한 약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4.8 혼혈아

다나카 고케이(田中康慶)의 「혼혈아(混血児)」(『新沖繩文學』1972.12)는 제목 그대로 미군과 오키나와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미군상대의 환락가를 무대로 혼혈아 고헤이의 시점으로 오키나와에서 흑인혼혈로 살아가는 이중의 고통을 자신과 또 다른 흑인혼혈 치료형제의 비참한 삶을 통해 그리고 있다. 고헤이는 흑인 특유의 곱슬머리, 눌러놓은 듯한 코, 뒤집어진 두터운 입술, 새까만 얼굴에 하얀 치아를 가진 자기 자신을 “구제받을 수 없는 슬픈 짐승”(9)이라 생각한다. 주변사람들의 노골적인 멸시와 기피로 인해 고헤이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고, 흑인으로 오해한 백인병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그가 오키나와인의 외모를 가졌다면 “동포의식으로 단결하여 미병에 맞서”(18)겠지만, 혼혈이라는 이유로 오키나와인들도 방관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치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도 버림받고 혼자서 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돌보며 차별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동생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수술비 마련에 절망한 치료는 결국 동생들과 함께 가스자살을 하고 만다. 이 작품은 미점령하의 오키나와의 현실을 이중의 차별구조 속에 있는 흑인혼혈의 비애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흑인 및 흑인혼혈의 외모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반복뿐 아니라 ‘검둥이’ ‘짐승’ ‘들개’ ‘인간실격’ ‘독벌레’ 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오키나와인의 내부에 자리한 모순된 차별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마타요시 에이키의 「쉐이크를 흔드는 남자(シェーカーを振る男)」(『沖繩タイムズ』1980.6)는 「혼혈아」와는 대조적으로 백인혼혈아 미노루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미노루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미병에게 버림받고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외모를 닮아가는 아들을 보며 발광한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를 대신해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미노루는 현재 그녀가 경영하는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 미노루는 오키나와인과는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며 자란 경험과 자신의 존재로 인해 어머니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현실로 인해 끊임없이 오키나와사회에서 혼혈아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고민한다. 바의 손님인 윌리엄스의 딸 린제이의 집요한 구애를 받지만 미노루는 미사코를 사랑하고 있다. 친선을 내세우며 미노루와 미사코를 집으로 초대하는 윌리엄스가족의 선의도 위선으로 느껴지고, 린제이와 둘이서 보트를 타러 갔을 때는 문득 “이 여자를 오키나와인 상대의 매춘부로 만들면 어떨까” “오키나와 남자라면 평소의 울분을 풀기 위해 상당히 무리해서라도 살 것임에 틀림없어”(91)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 한편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오키나와를 떠나 미국에서의 생활을 꿈꿔보기도 하는 미노루지만 결국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인으로 살아갈 결심을 한다.

시모지 요시코(下地芳子)의 「아메리카 민들레(アメリカタンポポ)」(『文學界』1997.6)는 「쉐이크를 흔드는 남자」와 주인공의 설정이 유사하다. 소설은 외항선을 타고 선원생활을 하던 다이치가 외할머니 후사와 어머니 미츠를 만나러 나하(那覇)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30년간 화물선을 타면서 2년마다 후사와 미츠를 만나러 오고 있지만 마음은 늘 무겁다. 다이치는 공항로비의 찾집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오키나와본도 북부에서 미병 3명에 의한 여아 폭행사건을 보도하는 TV뉴스를 보고 심한 충격을 받는다. 50년전 미츠도 미군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백인의 외모로 태어난 다이치는 후사와 미츠에게 있어서는 늘 가해자란 의식, 즉 미츠를 범한 미국인과 겹쳐져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 어릴 때 이질적인 외모로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었던 다이치는 늘 ‘미치광이 엄마’나 할머니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 때마다 긴타로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긴타로는 다이치에게 있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이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하다.

다이치는 자신의 선원생활보다 오랜 세월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츠를 만나러 나서지만 오키나와를 떠나기 전 면회를 갔을 때 자신을 심하게 거부하던 기억이 되살아나 망설이게 된다. 다이치를 보자 미츠는 “짐승같은 목소리”(242)를 내며 뒷걸음질부터 치기 시작했다. 다이치의 존재에 극심한 공포와 거부반응을 보이는 미츠는 50년 전 사건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병원을 나와 다이치는 노인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후사를 만나러 간다. 후사는 다이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자신에 대해 용서를 빌며 “요전에 TV에서 봤어. 지금 오키나와에 피어있는 민들레는 대부분 서양 민들레라는 것으로 어느새 외국에서 씨앗이 들어와 자라났다고 하더라. 언제 어떻게 들여졌는지는 확실히 모른다고 했어. 뭔가에 들러붙어 오키나와에서 자라나게 된 걸 테지. 할미는 이걸 다이치와 꼭 같다고 생각하고 울었단다.”(243)라는 이야기를 한다. 후사의 말을 전해들은 긴타로가 “그 여자아이 사건도 그래. 기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떠들고들 있어. 그럴 지도 모르지. 하지만 무슨 탓으로 돌린들 그런 인간이 있는 한 사건은 생겨.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결국 살아가는 것은 그 여자아이 자신이지.”(244)라는 말을 듣고 다이치는 씨앗이 떨어진 곳에 자라나는 ‘아메리카 민들레’가 바로 자신의 존재임을 깨닫는다. ‘아메리카 민들레’(백인혼혈아)로 오키나와관 땅에 태어난 이상은 깃뻛혀도 꽃을 피우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소설은 끝이 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중층적인 차별구조 속의 혼혈아의 삶을 통해 오키나와를 다양한 모순을 안고 있는 갈등구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있다. 미군에 의한 레이프라는 구조적인 성폭력시스템은 오키나와의 기지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상한다. 『웨이크를 흔드는 남자』와 『아메리카 민들레』와 같이 레이프의 결과 태어난 주인공에게 보이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식은 미점령 경험과 기지문제를 현재시점에서 현재에도 계속되는 폭력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4.9 오키나와여성

미점령 경험과 복귀 후에도 일본 전체 미군기지의 4분의 3이 오키나와에 몰려 있는 현실이다보니 미군 및 미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은 오키나와문학의 주요한 테마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미군병사와 오키나와여성, 미병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오키나와인, 미병상대의 매춘부, 혼혈아, 흑인,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문학에서 미군에 의한 레이프가 미점령을 상징해 온 것처럼 마타요시 에이키의 『자귀나무저택』와 같은 작품은 전쟁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장치 속에 여성의 ‘성’을 조합시킴으로써 전쟁을 폭력에 의한 약자의 지배로 표현하고 있다. 소설 속의 조선인종군위안부는 성폭력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매춘이라는 제도 하의 오키나와여성은 상품화된 신체를 표상함으로써 전후에도 오키나와사회에 계속되고 있는 폭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를 표상하고 있는 작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광광’, ‘허니’, 창부로 불리는 미군 상대의 매춘부는 대부분이 미국과 오키나와의 관계에서 피점령자, 피지배자로서의 오키나와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여성에 대한 오키나와사회 내부의 시선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를 자본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해야 하는 가족의 희생자로서 그려지기도 하지만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라사키 교타로(新崎恭太郎)의 『소철마을(蘇鉄の村)』(『新沖繩文学』1977.1)에는 미군 상대의 매춘부에 대한 오키나와인의 복합적인 시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인 쓰네오가족은 오카야마(岡山)로 소개한 후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의 친가가 있는 시골마을에서 살고 있다. 마을에서 전화(戰火)를 피한 가족은 두 채 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텐트나 가설주택에서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마을사람들에 비해 미군이 출입한다는 의미에서 ‘아메리카인집’이라 불리는 집만은 합석지붕, 유리창, 하얀 페인트를 칠한 문, 잔디가 깔린 정원 등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 소철나무로 연명해야 하는 마을사람들의 ‘아메리카인집’에 대한 시선에는 멸시와 경멸, 선망과 질투라는 상반된 감정이 섞여 있다. 병상에 있던 쓰네오의 형이 독사에 물려 숨겨 장례식이 행해지던 날, 여자를 태운 미군 지프가 굉음과 함성을 지르며 지나가 장례행렬을 흐트린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의 미군에 대한 반감과 혐오의 감정은 미군이 아니라 함께 탄 여자에게로 향한다. 쓰네오는 ‘아메리카인집’의 어머니가 형의 영전에 올리라며 바나나를 주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의 소문만으로 그들을 인식해 온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남자는 없고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자의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누구도 그녀를 ‘광광’, ‘염소 눈’, ‘3관녀’(63)¹²⁾라며 비난하고 멸시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문학에서 미군 상대의 오키나와여성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과의 교제가 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여성자신의 진실된 사랑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으며,¹³⁾ 미군을 창부자신의 고독한 죽음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독특한 작품도 있다.¹⁴⁾ 이러한 작품 속의 여성은 점령당한 오키나와를 상징해 왔던 기존의 창부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작가가 다수 등장하면서 오키나와적인 공

12) 염소 눈(山羊の目)은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을 지칭한데서 점령군 상대의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로 전화된 된 용어이고, 3관녀(三貫女郎)는 영당이가 가벼운 여자, 즉 정조관념이 약한 여자를 의미한다.

13) 亀谷千鶴子 『すみれ匂う』(『うるま春秋』1950.05), 中原善 『銀色のオートバイ』(『琉球新報』1977.11.13), 下川博 『ロスからの愛の手紙』(『琉球新報』1978.11.12), 長堂英吉 『エンパイア・ステートビルの紙ヒコーキ』(『新潮』1993.11) 등

14) 吉田スエ子 『嘉間良心中』(『新沖繩文学』1984.12)과 長堂英吉 『伊佐浜心中』(『群像』1992.02)

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왔으나, 1980년대 이후는 점차 가족과 공동체를 상대화하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는 여성상이 제시되고 있다. 나칸다카리 하츠(仲村渠ハツ)의 『어머니들 여자들(母たち女たち)』(『新沖繩文学』1982.12)은 일본복귀와 함께 본토로부터 자위대가 배치되자 오키나와인들 사이에 반전의식과 반자위대감정이 고조되어간 시기를 배경으로 고교 동창생인 미사일가와 가즈코일가를 교차시키면서 전쟁, 가족,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소설은 오키나와전쟁 때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30년간을 혼자 살아온 가마도할머니가 자신의 발에 자위대를 들이지 않게 해 달라고 소동을 벌이는 사건에서 시작된다. 사건 후 가마도할머니를 미사의 어머니가 돌보겠다고 자처하자 미사는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가마도할머니의 상처와 오키나와전쟁의 의미를 점차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즈음 미사는 맞선으로 만나기 시작한 교사 요시카와와는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가 학생들의 진학지도에게 자위대 입대를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요시카와의 사고에 대해 어머니와 가마도할머니의 삶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공감하고 있는 미사는 결국 교제를 단념할 결심을 한다. 한편 가즈코는 동생의 자위대 입대 결심을 둘러싸고 부모의 대립이 계속되자, 동생의 문제를 교제 중인 모토키에게 상의한다. 그러나 조합 간부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모토키는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으니 교제를 그만두자고 한다. 어머니의 고독한 투쟁으로 동생의 자위대 입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모토키의 태도 변화에 분노한 가즈코도 결혼을 포기하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다.

시라이시 야요이(白石弥生)의 『초여름의 내방객(若夏の来訪客)』(『新沖繩文学』1986.12)의 경우 오키나와 남성과 결혼한 신슈(信州)출신의 요코를 통해 오키나와적인 공동체의식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요코는 가장으로서 일은 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려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혈연과 지연에 의한 연대의식이 강한 오키나와의 풍토 속에서 시어머니는 이혼한 요코에게 명절과 가족 행사에 참가하기를 강요하고, 아들이 집을 나가고 없는 시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하지만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지켜나가고자 하는 요코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타현 출신의 여성의 시각을 통해 오키나와의 풍토와 토착성, 그리고 가족관계를 상대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5. 포스트콜로니얼문학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이상에서 제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 속에 형상화된 마이너리티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오하시 요이치(大橋洋一 1992:262)는 “서구가 아프리카, 아시아, 신세계와 교섭하고 그들을 식민지로서 수탈한 이후의 역사에 있어 문학작품은 식민지주의성을 띠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식민지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자면 근대 이후

의 문학작품은 모두 포스트콜로니얼문학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찍이 서구열강의 식민지이고, 현재 독립해서 존재하는 국가의 성원 혹은 민족의 손에 의한 문학생산”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보자면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은 동일한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을 포스트콜로니얼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문학의 포스트콜로니얼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신조 이쿠오는 마타요시 에이키의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에서 일본어가 철저히 ‘타자의 언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지의 시각과 내면이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번역되어 그려지고 있고, 오키나와인이 구사하는 언어가 조지에게는 이해불가능한 말, 욕설, 소음으로만 처리되어 있으며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 소설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영어와 오키나와방언이지만 그 장면을 재현하는데 있어서는 일본어만이 사용되어지고 있어, 화자의 번역수단으로서만 일본어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화 장면에서는 일본어가 배제되어 있고 그러면서 표기언어는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이 소설에서의 일본어는 “그것 자체 결코 자연스럽지도 필연적이지도 않은 편의적인 ‘언어’로 비본질화되어 있”(新城郁夫 2007:104)다. 또한 조지와 오키나와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키나와인이 구사하는 말은 일본어인지, 오키나와어인지 혹은 영어인지 결정불가능하다. “이 소설에 있어 일본어는 그것을 모어로서 말하는 존재를 모두 배제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대체 올바르게 등장인물의 영어든 오키나와방언의 번역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전달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입증할 수 없는 차용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新城 2007:106) 이 소설은 일본어의 안정된 동일성을 해체하고 있으며, 오키나와에서 “일본어로 소설을 쓴다는 행위의 허구성과 그 허구성에 되비쳐지는 일본어의 위험성”(新城 2007:103)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강제된 지배언어를 사용하여 문학활동을 하는 마이너리티문학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키나와문학 속에는 제국주의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1971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히가시 미네오의 『오키나와의 소년』은 소년 쓰네요시의 시각으로 미군 상대의 풍속업 거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쓰네요시는 사이판에서 태어나 패전 후 오키나와로 돌아왔다. 미사토(美里)에 정착하지만 생계를 위해 고자시로 옮겨간다. 고자시는 여자의 육체가 미군병에게 공급되며 미군병을 상대로 하는 풍속영업자들은 서로를 착취하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이다. 퇴폐하고 더럽혀진 세계에서 쓰네요시는 사이판과 미사토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사이판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이민들 간 가족은 원주민들 위에 군림한 식민자였다는 사실을 ‘대위법적’으로 읽을 경우, 쓰네요시의 사이판에 대한 향수의 이면에는 무자각적인 제국주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탈출하여 태풍 속에서 해외로 나가려는 쓰네요시에게 자극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로빈슨 표류기』란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빈슨 표류기』는 대영제국의 식민지개척의 로망을 담은 것으로 쓰네요시의 내면에는 식민지, 개척자, 영웅으로의 자기동일성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의 오키나와의 소년의 내면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국주의적 문화 및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70년 전후 파인공장이 있는 오키나와의 작은 마을을 무대로 하는 메도루마순의 『어군기』도 오키나와에서 파인애플 도입 과정과 파인산업 발전의 배경을 살펴볼 때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에서 한때 붐을 일으킬 만큼 환영받은 파인애플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으로부터 1930년대 후반에 유입된 작물이고, 주인공 소년의 가족의 경제는 파인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이다. 소설에서 외래어종 킬라피아와 대만으로부터의 계절노동자 여공들은 동일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식민지 대만인에 대한 제국주의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재일제주인문학은 오키나와문학에 비해 타자 인식에 있어 다소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과 타자 설정을 통해 재일제주인 스스로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이너리티인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내파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현월의 『권속』은 포스트콜로니얼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¹⁵⁾

제주도 출신의 ‘조선인’의 혈통을 지키려는 다카미츠 권속은 그 기원에서부터 모순을 안고 있다. 권속의 기원은 도메부부이다. 그러나 도메는 일본인이다. 도메가 “다카미츠가의 혈통을 더럽히고 있는 유일한 인간”(13)으로 권속의 기원에 위치하고 있는 한 “여자는 배제. 남자에게는 조선인 며느리밖에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면 권속으로 간주하지 않”(48)는 불문율로 일본인의 피를 물게 해도 순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권속의 피는 “유일한 일본인인 도메라는 원초의 더럽힘만이 아니었다. 미지의 피가 바이러스처럼 권속을 갇아먹고 있다.”(88) 도메의 차남은 일본인에게 강간당한 결과 태어난 일본인이다. 차남이 남긴 6명의 자식은 권속에 뒤섞여 근친상간으로 외모도 다카미츠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지 않는 ‘차남의 혈통’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권속은 원초적인 불가능성 혹은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도메의 사후 1년에 3차례 치러지는 제사(추석, 설, 다카미츠와 도메의 공동제사)는 관서지역, 오키나와, 한국, 미국에 흩어져 있는 권속이 집결하는 기회로 표면적으로는 일족으로 하여금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의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족을 결속시키고 있는 것은 혈통적 동일성 혹은 민족적 동일성이 아니라 권속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이다. 그들은 일본어를 공용어로 하며 일본인에 동화된 생활방식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이 권속의 일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체내의 ‘피’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카미츠 권속은 환상의 구축물이라 할 수 있으며, 『권속』은 그 허구성을 폭로하고 혈통의 환상을 해체하려는 시도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권속』은 포스트콜로니얼시대에 ‘상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민족과 국가를 고집하는 재일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작품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일본사회가 재일한인을 차별하는 근거 또한 ‘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환상과 영원히 동일한 계통이 계속된다는 만세일계(萬世一系)천황제 하의 일본사회는 ‘조선인’이라는 타자를 차별화하고 배제하는 것으로서 일본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왔다. 『권속』은 순수 혈통과 민족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재일사회뿐 아니라 천황제를 신봉

15) 이에 관해서는 논자의 『현월(玄月)의 『眷族』 문—포스트콜로니얼문학으로서의 가능성』(『日本文化研究』34집, 2010.04)에서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권속』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겠다.

하는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나오며

지금까지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 속에 나타나는 마이너리티 양상에 대해 고찰했다. 서두에서 일본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개념에는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로서의 이미지는 약하고 ‘약자’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 약자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했다. 그런데 오키나와문학의 경우 일본사회의 일반적인 성향과는 달리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후문학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검은 다이아」가 인도네시아인 청년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오키나와문학에는 미국인, 조선인(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흑인, 혼혈아 등 다양한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밖에 미군상대의 창부,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를 가진 자가 마이너리티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의 마이너리티 표상에 있어 가장 현저한 차이는 타자 설정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문학에 있어서는 다양한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가 등장하는 데 반해 재일제주인문학의 경우 대부분이 재일제주인 자신을 마이너리티로 표상하고 있으며 그 외 뉴커머로서 중국인(조선족)과 필리핀인, 캐나다인 정도에 불과하다. 재일제주인문학 속에 형상화된 마이너리티의 구체적 양상은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의 희생자, 일본사회의 중층적인 차별구조 속의 피차별자, 일본사회의 민족차별 뿐 아니라 재일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에 의한 이중적 피차별자로서의 여성이 지배적이다. 차별의 역학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재일제주인만이 아니라 일본인과 뉴커머도 피차별자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오키나와문학과 비교했을 때 재일제주인문학에는 일본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타자적 시선은 발견되지 않는다. 백인과 흑인의 혼혈과 같이 외견상 확연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동일인종의 혼혈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인과의 혼혈은 대부분 재일제주인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피’에 의한 차별, 즉 순혈의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 의해 이민족을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일본사회에서는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의 혼혈도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재일사회의 ‘이물’로서 그려진 뉴커머에 대한 인식의 근거에는 올드커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민족성을 말살당하고 지배사회로의 동화를 강요받아온 올드커머에게 있어, 한국인으로서의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으며 민족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며 살아가는 뉴커머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위협하는 이질적인 타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에스닉 및 내셔널 마이너리티를 중심으로 살펴본 오키나와문학의 경우 재일제주인문학과 마찬가지로 피식민자, 피차별자, 피점령자, 피지배자로서의 이미지는 타자표상의 과정

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키나와의 자화상이었다. 일본으로의 복귀전의 오키나와문학에서는 미군통치라는 상황이 문학작품의 큰 테마였고 미국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대부분이 점령자 혹은 지배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복귀 후 오키나와의 '토속성'이 부각되는 작품 경향이 강해지면서 '미국'이란 존재의 문학적 테마성은 다소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과 오키나와의 관계를 점령과 피점령, 지배와 피지배, 식민과 피식민, 차별과 피차별이라는 이항대립적인 구도에서 그려내는 작품은 감소하고, 대신 '미국'에 대한 독자적인 시각이 다양한 문학적 시도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문학적 타자의 범주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타자 설정을 통해 근대 이래의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문제와 오키나와전쟁, 그리고 기지문제 등 오키나와의 현실과 정치적 현안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 식민지 역사의 희생자를 오키나와인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조선인'군부, 종군위안부, 중국인, 대만인 등의 억압받은 자의 빼앗긴 목소리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자를 통해 오키나와사회 자체를 상대화함으로써 오키나와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 즉 오키나와인에 의한 인종적, 민족적, 신분적 차별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발견된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식민지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문화적·정신적 탈식민화는 용이하지 않다.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은 식민지주의/제국주의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표출하고 있다. 금후 마이너리티문학은 근·현대역사 속에서 식민지화된 마이너리티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비되고 유통되고 있는 “<항상-이미-읽혀지고 있는> 타자”=스테레오타입화된 마이너리티상을 해체하여 “<아직-여전히-읽혀지지 않은> 타자”(大橋洋一 1992:268)로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이너리티화된 자들의 역사를 재발견할 수 있는 문학적 생산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소명선(2009)『현월의 『말 많은 개』 론-재일제주인 사가』(『동북아문화연구』제19집 2009.06) p.300
 _____(2011)『오키나와문학 속의 '조선인'-타자 표상의 가능성과 한계성』(『동북아문화연구』28집 2011.09) p.540
 新川朗(1992)『戦後沖縄文学ノート—新世代の望むもの』 『沖縄文学全集第17巻 評論 I』 国書刊行会 p.96, p.98
 新崎恭太郎(1990)『蘇鉄の村』 『沖縄文学全集第8巻 小説Ⅲ』 国書刊行会 p.63
 石原慎太郎(1997)『あらためての、沖縄の個性(第117回芥川賞決定発表選評)』(『文芸春秋』1997.11) p.431
 _____(2000)『輝きなし(第122回芥川賞決定発表選評)』(『文芸春秋』2000.04) p.363
 李良枝(2006)『ナビ・タリオン』 『<在日>文学全集第8巻 李良枝』 勉誠出版 p.21, p.47
 岩間暁子/ユ・ヒョンジョン(2007)『マイノリティは何か—概念と政策の比較社会学』 ミネルヴァ書房 p.51
 上原昇(1990)『一九七〇年のギャング・エイジ』 『沖縄文学全集第8巻 小説Ⅲ』 国書刊行会 p.297, p.300
 太田良博(1990)『黒ダイヤ』 『沖縄文学全集第7巻 小説Ⅱ』 国書刊行会 p.11, p.12
 大城立裕(2002)『神島』 『大城立裕次全集第9巻 短編Ⅱ』 勉誠出版 p.328
 大城裕次(2003)『ブルー・ライブの夏』 『沖縄短編小説集2—『琉球新報短編小説賞』受賞作品』 琉球新報社 p.266
 大橋洋一(1992)『ポストコロニアルの文学/批評』 『越境する世界文学』 河出書房新社 p.262, p.268
 喜舎場順(1990)『暗い花』 『沖縄文学全集第7巻 小説Ⅱ』 国書刊行会 p.115
 金徳煥(1989)『新・猪飼野事情』(『済州島』1989.04) pp.63~67 参照

- 金石範(1999)『なぜ日本語で書くか』について、『鴉の死 夢、草深し』小学館 p.234
 _____(2001)『私にとってのことば』、『在日』の思想』講談社文芸文庫 p.126, p.143, p.158
 _____(2002)『虚日』(『群像』2002.05) p.7
- 金石範/玄基栄(2001)『対談 濟州島「4・3事件」をなぜ書き続けるか』(『世界』2001.08) p.239
 金蒼生(2006)『赤い実』、『<在日>文学全集第10巻 玄月・金蒼生』勉誠出版 p.352
 久志富佐子(1993)『滅びゆく琉球女の手紙』、『沖縄文学全集第6巻 小説Ⅰ』国書刊行会 p.97
 玄月(2002)『焦熱』(『群像』2002.11) p.100
 _____(2006)『蔭の棲みか』、『舞台役者の孤独』、『<在日>文学全集第10巻玄月・金蒼生』勉誠出版 p.17, p.120, p.125, pp.155~156
 _____(2007)『眷族』講談社 p.13
- 崎山麻夫(2011)『ダバオ巡礼』川村湊編『現代沖縄文学作品集』講談社文芸文庫 p.93
 ジル・ドゥルーズ, フェリックス・ガタリ著/宇波彰ほか訳(1978)『カフカーマイナー文学のために』法政大学出版局 p.27
 鄭暎恵(2003)『<民が代>斉唱』岩波書店 p.13
 下地芳子(1997)『アメリカタンポポ』(『文学界』1997.06) p.242, p.243, p.244
 朱恵足(2001)『目取真俊「魚群記」における皮膚—色素触覚インタフェース』(『現代思想』2001.10) p.22
 新城郁夫(2003)『広がりある寓意性と比喩表現の充溢』(『沖縄タイムス』2003.11.01)
 _____(2003)『沖縄文学という企て—葛藤する言語・身体・記憶』インパクト出版会 p.25
 _____(2007)『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2007.11) p.98, p.100, p.104, p.106, p.149
- 杉原達(1998)『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pp.25~31
 宗秋月(1990)『華火—平野運河』(『民涛』1990.03) p.68
 _____(2006)『猪飼野のんき眼鏡』、『<在日>文学全集第16巻 作品集Ⅱ』勉誠出版 p.8, p.13, p.15, p.16, p.37
- 田中康慶(1972)『混血児』(『新沖縄文学』1972.12) p.9, p.18
 長堂英吉(1966)『黒人街』(『新沖縄文学』1966.04) p.18
 林浩治(1991)『在日朝鮮人日本語文学』新幹社 p.121
 又吉栄喜(1980)『受賞のことば』(『すばる』1980.12) p.125
 _____(1981)『窓に黒い虫が』、『ギンネム屋敷』、『ギンネム屋敷』集英社 p.93, pp.172~173, p.188
 _____(1988)『シェーカーを振る男』、『パラシュート兵のプレゼント』海風社 p.91
 _____(1990)『カーニバル闘牛大会』、『沖縄文学全集第8巻 小説Ⅲ』国書刊行会 p.112, p.117
- 宮城聡(1993)『ホノルル移民局』、『沖縄文学全集第6巻 小説Ⅰ』国書刊行会 p.174
 目取真俊(1990)『魚群記』、『沖縄文学全集第9巻 小説Ⅳ』(国書刊行会、1990.09) p.60, p.61, p.68
 比嘉屋嘉比収(2003)『近代沖縄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ー認識の変遷』、『別冊環 琉球文化圏とは何か』藤原書店 p.241
 山里勝己(1999)『南のざわめき・他者の目差し—沖縄文学の可能性』情況出版編集部編『沖縄を読む』情況出版 p.183
 山之口冀(1993)『天国ビルの斉藤さん』、『沖縄文学全集第6巻 小説Ⅰ』国書刊行会 p.317
 梁石日(1999)『族譜の果て』、『冬舎文庫』p.208, p.270
 _____(2006)『共同生活』、『<在日>文学全集第7巻 梁石日』勉誠出版 p.48, p.50

- ◆ 논문 접수일 : 2012. 3. 31.
- ◆ 논문 수정일 : 2012. 5. 7.
- ◆ 게재 확정일 : 2012. 5. 11.